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969-10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지역 기상담당관 10

위험기상 감시와 기후변화 지킴이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ONTENTS

2014년도 지역기상담당관 우수사례집

Chapter 01

부산지방기상청

- 04 예보과 Safe Land! Safe Sea! 우리강산 지킴이 출동!
- 09 창원기상대 땀대! 지역민의 안전 & 건강 플러스 기상정보
- 17 포항기상대 무한도전!(무공해 한국대표 도시를 위한 전략적) 기상·기후서비스



Chapter 02

광주지방기상청

- 22 예보과 '1'이 없어질 때 까지! SNS 방재업무 소통, '방재한울타리' 운영
- 27 순천기상대 허벌나게 좋아부러요~ '광양매실 명품 만들기'를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 31 완도기상대 완도 사랑! 함께 해요, 우리!



Chapter 03

대전지방기상청

- 36 동두천기상대 종합기상정보선물세트 배달부, 지역기상담당관!
- 40 파주기상대 성공적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 44 서산기상대 태풍전야에 불꽃을 쏘아 올리다!!!
- 47 추풍령기상대 우리동네 영동(永同)군의 맞춤형 지역기상담당관!



Chapter 04

강원지방기상청

- 52 동해기상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One-Stop 서비스」
- 57 영월기상대 매력 물씬 지역기상담당관, 국민 행복 플러스(+)
- 61 철원기상대 국가 안보의 초석은 군(軍)과의 소통으로 부터!!!



Chapter 05

제주지방기상청

- 66 예보과 제주 인명피해 제로!! 끝없는 도전~
- 71 서귀포기상대 도전UP 공감UP 행복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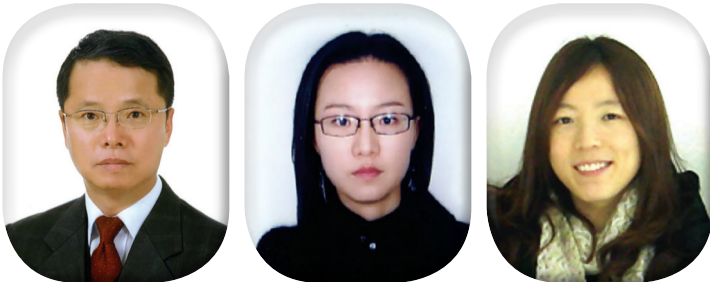
부산 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읍·면·동별로 동네예보를 발표하고,
산악예보, 지역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며,
열린 기상청을 만들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afe Land! Safe Sea! 우리강산 지킴이 출동!

부산시, 기장군, 김해시 지역기상담당관
예보과 박광호/박소영/김정희



“

부산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경제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달리는 지역기상담당관!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쉬 없이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활동요약

부산은 해양과 내륙이 공존하는 천혜의 해안도시이나 그만큼 육상과 해상의 위험기상이 상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세계 5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인 부산항이 위치해 있는 부산은 태풍 북상 시 대형 선박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부산지방기상청은 태풍 공개 설명회와 선박대피협의회 기상브리핑을 통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기상지원과 대형 선박들의 피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지원하여 태풍으로 인한 지역 피해 최소화과 선박 피해 Zero에 기여하였다. 또한, 산림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발생 시 SMS로 즉시 통보받고 있으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아 전 기상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 올해 봄철 전국 산불 발생건수는 지난해보다 177건이 늘었지만 그 피해 면적은 1/6로 줄었는데, 이것은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신속한 기상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안전한 바다와 육지를 위해 지역기상담당관들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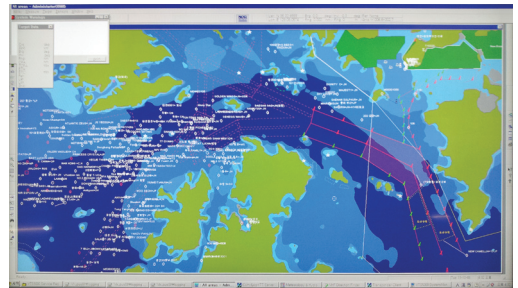
▶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항만과 문화·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런 크고 강한 도시의 기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그 활동의 시작은 기상수요자의 needs 파악이다.

‘날씨와 언론에 귀 기울이다!’ 날씨 현황과 전망, 언론을 통해 기상관련 상담 및 자료가 필요한 곳을 발굴, 지역기상담당관으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하나?’ 항상 생각하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그 활동 방향을 정하다.

▶ 활동 1. 대형 선박 피항 기상지원으로 해상 안전 수호

올해도 어김없이 ‘제8호 태풍 너구리’와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부산은 우리나라 남동쪽 끝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태풍 북상 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세계 5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인 부산항은 태풍 북상 시 대형선박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부산지방기상청은 유관기관 및 언론을 대상으로 ‘태풍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여 태풍 최근점 시간대와 그 영향 정도를 과거사례와 비교하여 부산지역 중심의 실질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주최로 개최되는 선박대피협의회에 참석하여 태풍전망 및 부산항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함으로써 부산항 주변 대형선박의 피항 유무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800여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불필요한 피항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효과(부산항 ↔ 진해만 피항 시 왕복 기름값 약 2,400억원)와 함께, 부산항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진해만 지역으로 대피하게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과 경제적 효과 등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진해만으로 선박 피항 중인 관제화면



태풍 공개 설명회(7.8)



선박대피협의회(7.8, 9)



⇒ 부산항 선박 약 800여척 진해만으로 피항, 선박 피해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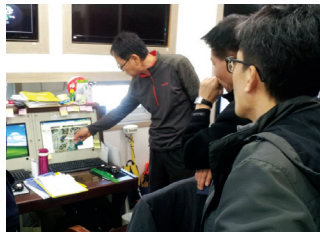
※ 부산항 ↔ 진해만 피항 시 왕복 기름값 약 2,400억원 소요

▶ 활동 2. 산림청과 협업, 산불 확산방지 및 조기진화에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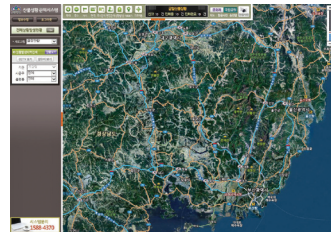
대설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건조한 대기로 인한 산불발생은 겨울철과 봄철의 큰 기상재해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규모가 더 커져 도시 인근지역 산불이 도심지 화재로 확산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산불은 무엇보다도 산불발생 정보의 빠른 입수와 이에 따른 맞춤형 기상지원이 그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부산 지방기상청은 관할의 함양과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업무 협력을 통해 산불발생 시 그 정보를 SMS로 통보해 줄 것과 산림청의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기로 협의하였다. 부여받은 ID는 본청 및 전국 기상대에 공유하여 전 기상관서에서 관할지역 산불발생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봄철 전국 산불은 총 428건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177건 증가하였으나, 피해면적은 약 119ha로 1/6로 줄었다. 이는 여러기관의 공동 노력의 결과 이겠지만, 24시간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지켜보고 신속하게 맞춤형 기상지원을 실시한 전국의 지역기상담당관들의 공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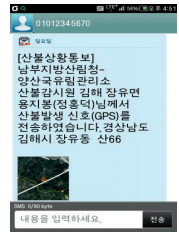
함양국유림관리소(1,24)



양산국유림관리소(1,28)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화면(산불발생지역 표출)



산불발생통보SMS

⇒ **산불 확산 방지 및 조기 진화로 산림 보호에 기여**

⇒ **산불로 인한 산림 유실 10% 감소 시 연간 5억3천여만원의 경제 이익 창출**

※ 연간 산불 발생건수 387건, 피해면적 734ha, 피해금액 5,306백만원('03~'12년 평균,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짧게는 40년에서 길게는 100년간의 투자와 노력 필요

▶ 활동 3. 나라e음 위험기상 브리핑에만 쓰지 않는다!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개설한 나라e음 영상회의시스템, 위험기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지자체와 브리핑 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편리하게 만들어진 나라e음의 활용,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를 고심하던 중 '지자체 방재 담당자들의 교육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지자체 방재 담당자들은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활용법을 잘 몰라 그에 대한 교육을 받길 원함에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탄생한 것이 나라e음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자료에 대한 설명과 정보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었다. 하루 1시간의 투자가 쌓이고 쌓여 지자체 담당자를 기상전문가로 키운다! 또한, 인근 지자체 방재 담당자들과의 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루 1시간 투자가 아깝지 않아요~’



기상정보의 이해 및 활용(8.13)



맞춤형 통보서비스(8.14)



⇒ 출장비 예산 절감+시간 절약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긍정적 반응

‘기상청 직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자료 제공에 감사드림’

기상청 최초 태풍 공개 설명회 개최로 부산시, 해양항만청 등 관련 유관기관의 사전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 인사와 부산MBC, KNN 등 지역 주요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산MBC, KNN 등 5개 지역 언론 보도(7.8)

우리는는 재난대비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상청 예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이 직접 내방하시어 개최한 기상 특별설명회(10.7)는 태풍대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아주 큰 인상을 받았으며,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뿐 만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호우 등)에 큰 피해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기상청 직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자료 제공이 더욱 절실하다 여겨지며,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부산시와 기상청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청 재난안전과 감사 인사(11.3)

경남도민일보

2014년 02월 27일 목요일 013면 사람들

양산국유림관리소-부산기상청 산불 공동대응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복)는 봄철 산불발생에 대비해 부산지방기상청과 산불피해에 공동 대응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의 산불발생상황 통보 장치에 기상예보관을 등록해 산불발생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산불현장의 기상상황을 제공받는다. 이 시스템은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불감시원이 현장에서 단말기로 산불발생 신고를 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등록된 기상예보관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통보한다. /김종걸 기자

경남도민일보(2.27)

‘유용한 기상정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부탁드립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에 감사하며, 기상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국유림관리소 직원 대상 기상교육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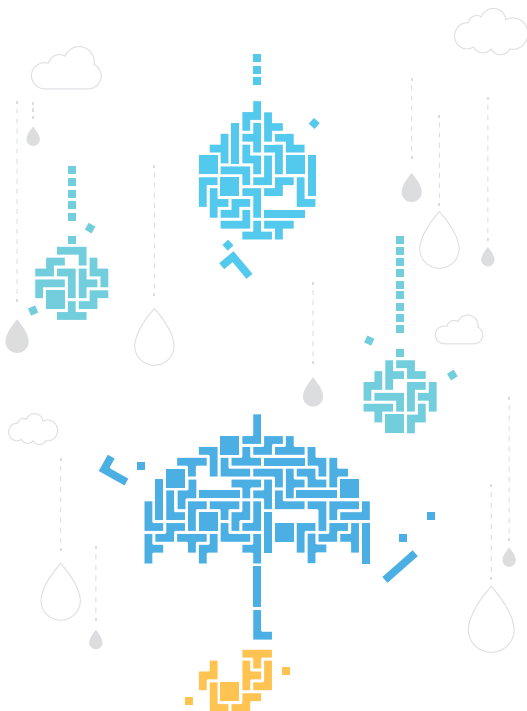
'편리하네요~ 종종 나래음으로 만나요!'

초기 나래음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꺼리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교육 효과도 높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주기적으로 교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반기별 교육을 계획 중이다.

» 에피소드

지자체 담당자와 동병상련,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공무원이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 중인 7월 9일 기장군으로부터 태풍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긴급 요청이 들어왔다.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기장군으로 출동~! 뜨아~ 군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 군수님 바로 옆자리가 '지역기상담당관' 자리! 직급, 나이를 넘어선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태풍 전망과 우리 지역에 끼칠 영향 등을 브리핑 한 후 기장군의 담당 과장들로부터 대책상황을 보고받는데... 열혈 군수님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과장들을 질책하신다. "좀 더 철저히 준비하세요!" 회의 후 기장군 담당자와 "기상청이나 지자체나 다 같은 공무원이네요..." 동병상련을 느끼며 한결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기상담당관, 방재공무원 모두 화이팅!



뒀다!

지역민의 안전 & 건강 플러스 기상정보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기상담당관
창원기상대 기상주사 고희영



“

18개 시군을 총괄하며, 340만 경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남도청이 자리한 도시 창원.
나는 이곳의 지역기상담당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365일
열린 기상대의 역할을 활발히 해낼 것을 약속한다. 화이팅!!



활동요약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지역의 보석 같은 기상기후정보를 지역민에게 맞춤형으로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데 앞장섰다.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며 한걸음씩 다가간 정부 3.0의 실천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동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날씨정보로 지역민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역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오늘도 지역기상담당관의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 차근차근. 창원의 밑그림을 그린다.

창원 제대로 알기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으로 통합되기 이전, 2003년 태풍 매미의 상흔이 남아 있는 마산에서는 1899년 개항 이후 바다 매립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좁고 긴 협수로에 바다와 접해 있고 지대가 낮은 해안을 끼고 있어 천문조고가 220cm 이상이면 만조 때 하수구 역류로 물이 차기 시작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해안지역에 매립지이니 정말 방심할 수 없는 곳이다.

한편, 창원은 해안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산합포구를 제외하면 내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겨울철 기상대는 비가 내려도 내서와 같은 북서쪽에는 눈이 내린다. 이렇듯 태풍, 집중호우, 눈, 강풍, 안개와 같은 위험기상에 취약한 창원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수도 창원시가 으뜸으로 내걸고 있는 지역사업은 무엇인지, 기상청의 정보를 공유 해서 지역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우선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풀어 나가기로 했다.



태풍 매미 희생자 위령비



태풍 매미 피해현장 답사

» 활동 1. 지역의 안전 지킴이

“빈번한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

경상남도 영상회의시스템

기상정보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신속한 방재업무 가능!

지난해 폭염으로 지역민이 몸살을 앓았다면, 올해는 태풍, 집중호우 등의 위험기상으로 지역기상담당관의 하루하루가 유난히 바빴던 것 같다. 창원기상대에서는 위험기상 예상 시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 전체의 예보를 파악하여 경상남도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이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경남도청은 위험기상 대비로 분주하다. 기상대에서는 이런 긴급한 방재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18개 시군 방재담당자 270여명, 지역자율방재단 5,500여명(+α)에게 일일이 방문해서 낱씨를 설명해 줄 수 없는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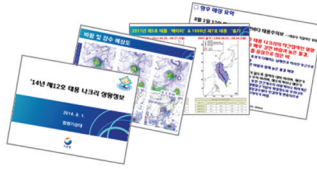
올해는 전국 기상관서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경상남도-기상대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상남도 맞춤형 위험기상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브리핑하였고, 이후 경남도청으로부터 창원기상대 덕분에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받았다.



경남도청-기상대 영상회의시스템



창원기상대



◀ 18개 시군 영상회의의 참석



경남도청



경남도청 창원기상대 방문 간담회(2.28)



경남 방재담당 공무원 워크숍 강의 (방재담당자 400명, 3.27)

경상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자연재난 유공자 포상계획 안명

2014년 자연재해 피해예방 및 복구에 공이 많은 공무원, 유공자, 민간인에 대하여 불일과 같이 포상코자 하오니 대상자를 일선하여 2014.11.24 (화) 까지 불일 서식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일 1. 2014년 자연재난 유공자 포상계획 1부
2. 제출서식(불일.1.2) 1부, 공.

'14년 경남도지사 표창 예정

창원기상대 공식 블로그 운영, 창원시 페이스북 날씨상황 전파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확대! Wow!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E-mail, FAX,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보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기상 정보를 기상서비스 수요자는 어떤 수단을 통해 이용하고 싶을까? 올 여름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통보방식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창원기상대 공식 블로그를 만들어 날씨 서비스에 들어갔다.(서비스 개시 7.1~)

창원기상대 공식 블로그 운영(http://blog.naver.com/ps_155)

2014년 7월 10일 기상정보

구분	상세내용	제공시각
무더위 정보	낮기온정보	오후 17시
	강수량정보, 폭염 및 열대야 현황	오전 10시
건강과 날씨	행복플러스 보건기상정보	매일 20일경
미래 날씨 알기	주말날씨전망	매주 화, 목요일
	강수전망	보도자료 발표 시
우리지역 위험 기상 알리미	위험기상 알리미	위험기상 보도자료 발표 시
	위험기상 대처요령	수시(필요 시)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제공시각
무더위 정보	낮기온정보	오후 17시
	강수량정보, 폭염 및 열대야 현황	오전 10시
건강과 날씨	행복플러스 보건기상정보	매일 20일경
미래 날씨 알기	주말날씨전망	매주 화, 목요일
	강수전망	보도자료 발표 시
우리지역 위험 기상 알리미	위험기상 알리미	위험기상 보도자료 발표 시
	위험기상 대처요령	수시(필요 시)

창원시 공식 페이스북

기상대의 위험기상정보를 창원시 페이스북의 생생한 소식으로 전달!

위험기상을 전파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최근 SNS가 선호되는 가운데, 기상대에서 카카오톡을 운영해 보기도 했지만 난관이 있었던 것이 사실. 마침 창원시의 공식 페이스북의 '좋아요' 클릭수는 2만 4천여 건으로 무척 활성화 된 것을 알았다.

3년 간 창원시에서 폐북지기를 하셨던 분이 그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위험기상을 페이스북으로 알린 일이라고 한다. 비도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맞으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기상정보가 중요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내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면, 그 강점을 살려 많은 이들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생생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토대로 지역의 위험기상 대비를 위해,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 페이스북으로 기상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창원시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수 2만 4천여명
창원시 전 폐북지기 임성운(출처: 경남도민일보,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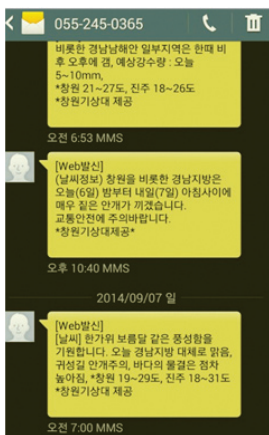
"2011년 2월 14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눈이 10cm 이상 와 비상이 걸렸죠"

"새벽에 시청엘 갔는데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알렸죠. 비상근무라 뽕샘근무를 해야 해서 재해 소식을 꾸준히 올렸죠. 다음날 과장님이 내려오시더니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태풍 같은 것이 오면 뽕샘은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해피콜 모닝브리핑 서비스

하루의 날씨 포인트를 콕! 하루의 시작은 모닝브리핑으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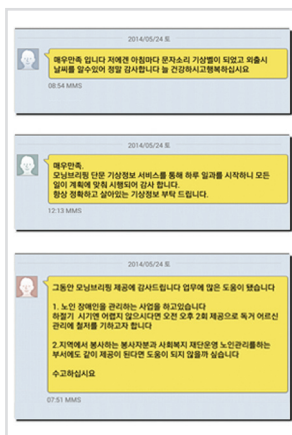
매일 오전 7시만 되면 울리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주요 정책결정권자와 지자체 유관기관, 건강관리위원회에게 경남지방의 오늘 날씨와 창원, 진주의 기온정보를 담아 매일 알람처럼 제공하는 '해피콜 모닝브리핑'이다. 올하는 계절별로 맞춤형 위험기상 문구를 정해서 위험기상에 대비토록 하였다. 올 상반기 수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24~5.28)를 하였는데 매우만족이 93.3%, 만족이상이 100%에 달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통보수단의 확대를 원하고 있어 창원기상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으로 유관기관 방문 시에는 항상 모닝브리핑을 잘 받아 보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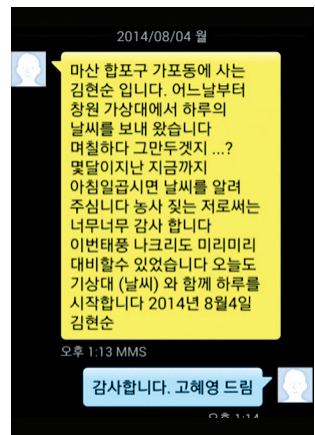
모닝브리핑



설문조사 이벤트 추천(5.28)



설문조사 의견



감사 메시지

» 활동 2. 지역의 건강과 행복 지킴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동네의 건강과 행복을 더할 수 없을까?”

행복플러스 생활보건기상정보 서비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으로 행복은 더하고 기쁨은 나누어요!

지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녹색도시 창원의 지역현안은 무엇일까? 창원기상대가 있는 가포동은 경남에서 사망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건강 수명 연장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현안, 작년부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산보건소와 건강관리위원회가 함께 추진되고 있던 가포동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창원기상대의 건강기상예보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달의 기후, 환경기상이슈, 위험기상을 담은 창원기상대의 ‘행복플러스 생활보건기상정보’를 발굴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산보건소의 ‘날씨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를 새롭게 선보여 매달 동사무소 전단지과 보건소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기상과 보건정보를 결합한 행복플러스 기상정보를 지역민이 쉽게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강기상정보의 롤모델로 발전시켜 경상권을 넘어 전국으로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관리위원회 협의(2.21)



건강관리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발표(4.10)



경상권 보건담당자 대상 기후변화 건강 적응 역량강화 교육 강의(11.6)



로컬투데이(7.15)

경남도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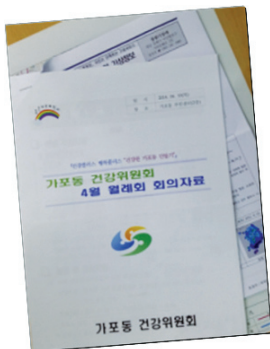
2014년 05월 30일 금요일
012면 사람들



창원기상대 '경남지역 여름철 계절 전망' 간담회

기상청 창원기상대(대장 홍성대)는 28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경남도, 창원시 및 보건소, 학계, 언론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원기상대는 이 자리에서 '경남의 기후 특성 및 올 여름철 계절 전망'을 발표했다. /임채민 기자

기후변화, 건강, 방재 주제 간담회 개최(5.28)



통장회의 전단지



2015년 보건기상 캘린더

공영자전거 누비자 기상정보 서비스

녹색행복 광풍!! 교통길 건강지킴이 기상정보로 우리 동네를 마음 놓고 누비자!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녹색 교통수단으로 선진국의 각광을 받고 있는 자전거 타기. 환경수도 창원에는 에너지 고갈과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대안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고 창원시민의 95.6%가 자전거 타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창원은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42개 자전거 터미널, 7,000여개 자전거, 약 350km 자전거길 보유)

자전거를 탈 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온이나 자외선 지수 등 날씨정보가 중요한데, 기존엔 이러한 정보제공이 없었다. 이를 위해 올 초 창원을 방문하여 기상정보를 창원시 자전거 이용 수요자에게 제공 가능토록 협의했고, 누비자시스템 운영업자인 창원경륜공단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수차례 협의와 테스트 끝에 드디어 누비자자전거 홈페이지와 자전거 터미널 키오스크 시스템, 누비자 상황실, 롯데백화점 누비자 홍보관에 기상청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누비자 기상정보 서비스가 시작됐다.(8.14~)



창원시 생태교통과 방문협의(1.21)



창원경륜공단 협의(4.4)



경남도민일보(8.14)



누비자 홈페이지(<http://nubija.changwon.go.kr>)



자전거 터미널 키오스크 시스템



누비자 상황실



롯데백화점 누비자 홍보관

벚꽃속보 기상서비스

“우리동네 행사 기상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살찌울 수 없을까?”

특화된 기상정보 지원으로 지역행사 대성공의 기쁨을 누리!

작년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 축제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진해군항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벚꽃속보를 제공하였다. 진해 여좌천의 벚꽃 군락지의 개화시기를 맞춤 분석하여 사전 브리핑하였고 축제일 5일전인 3월 27일부터 축제가 끝나는 4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직접 진해의 개화 관측목 사진을 찍고 날씨정보와 함께 벚꽃속보를 발표하였다. 이 정보는 진해군항제 홈페이지에 등재해 시민들이 개화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벚꽃속보 클릭 수는 무려 2만여 회를 기록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306만명의 관광객과 80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하였는데, 창원기상대는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행사지원에 기여한 공으로 창원시장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벚꽃 군락지 사진 촬영

벚꽃 속 보
[2014. 4. 2.(수) / 기상청 창원기상대]

□ **벚꽃 상황**

- 관측일시 : 2014. 4. 2. (수) 09:00
- 관측장소 :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벚꽃 군락지

	군정 사진		천경 사진	

□ **기상예보**

- 날씨 상황
 - '14. 4. 2.(수) 09시 현재, 포항스 다리를 비롯한 진해 여좌천 벚꽃 군락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음. ※ 진해(45°08'30) : 기온 13.9℃ SWW 04㎜
- 날씨 예보

	4.2.	4.3.	4.4.	4.5.	4.6.	4.7.	4.8.	4.9.	4.10.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날씨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구름
최저/최고 기온(°C)	7/21	11/21	6/26	7/16	6/19	8/20	19/20	10/20	9/18

- 오늘(4.2)은 평년보다 4℃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가 되겠음.
- 내일(4.3) 오후 늦게부터 4월 6일 오전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2℃ 가량 낮고 돌풍성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겠으니,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바람. 특히 주말 정경과 한식을 맞아 산별조심 바람.

* 최신 상태 날씨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해 군항제 날씨 브리핑(3.28)

벚꽃속보

개화날씨정보(기상청)

* 주소: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788-1(남해군진해면)

연도	연도	연도	연도
1 3.31 3월말현재	2 3.30 3월말현재	3 3.29 3월말현재	4 3.28 3월말현재
5 3.27 3월말현재	6 3.26 3월말현재	7 3.25 3월말현재	8 3.24 3월말현재

벚꽃속보 군항제 홈페이지 서비스



여좌천 벚꽃개회(3.24)

여좌천 벚꽃만발(3.31)



감사패 수상(12.17)

무한도전!(무공해 한국대표 도시를 위한 전략적) 기상·기후서비스

포항시 지역기상담당관
포항기상대 기상주사 이명희



“

포항시에는 한국의 대표 철강 산업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해 포항시청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포항시에 특화된 기상·기후정보 서비스로 지역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아이টে를 발굴하여 공업도시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활동요약

2014년 현재 포항시에는 철강사업체가 320여개가 입주해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대기환경민원건수가 230건이나 달할 정도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오염물질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포항시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포항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상청 국지모델자료를 활용한 2차원 바람장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시에는 일반시민, 철강관리공단내 직원 총 100명의 환경감시요원이 있다. 시청 뿐 아니라 환경감시요원에게도 2차원 바람장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다음 날의 기류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서비스로써는 대기환경기후정보와 오존·자외선 기후정보 2가지의 아이টে를 제공한다. 대기환경 기후정보는 과거 포항지역에 대기오염농도가 높았을 때의 기상특성을 제공하며, 오존·자외선 기후정보는 포항지역에서 관측한 오존과 자외선의 연변동과 지수에 따른 인체 위험정도를 제공한다.

올 한 해 동안 포항시청, 포스코, 철강관리공단과 함께 대기질 개선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대기오염 물질농도가 최근 1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질소산화물은 40%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민원 건수도 감소하여 전년 대비 32% 감소하여 무공해 한국의 대표도시 포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포항시는 경북남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3만명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사업체가 320여개나 입주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공업도시이다. 주거지의 남동쪽에 철강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특히 남동풍이 불 때는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쉬워진다. 포항시의 서쪽은 태백산맥 지류, 동쪽은 동해남부해상이 위치하여 대륙성과 해양성 기후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연평균 기온은 14.2℃, 연강수량은 1152mm, 연강수일은 100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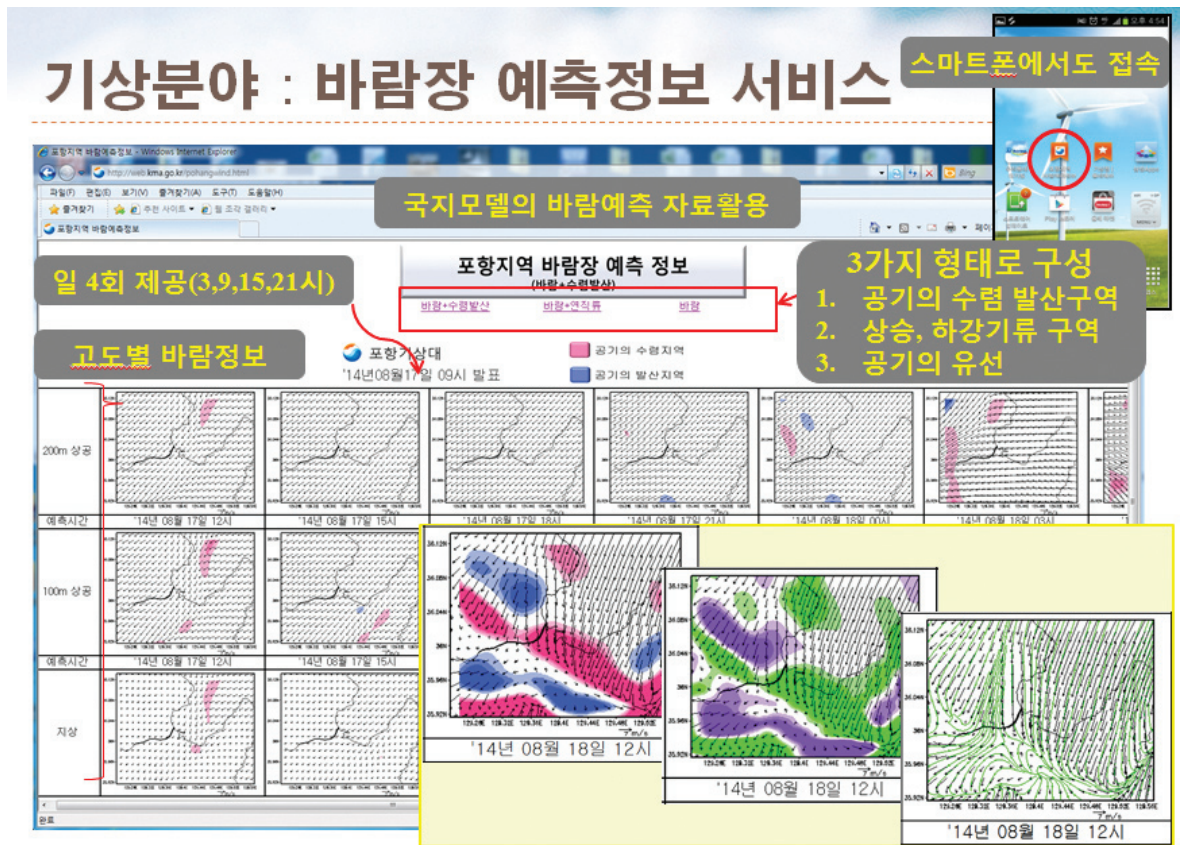
» 활동 1. 업무협의회 및 세미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포항시청 환경관리과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서비스 아이템 발굴과 보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련종사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포항시청에서 적극 지원하였다.

활동 2. 기상서비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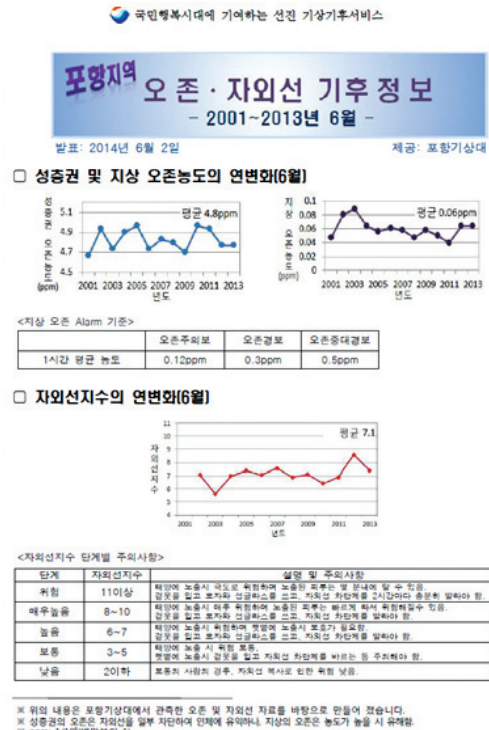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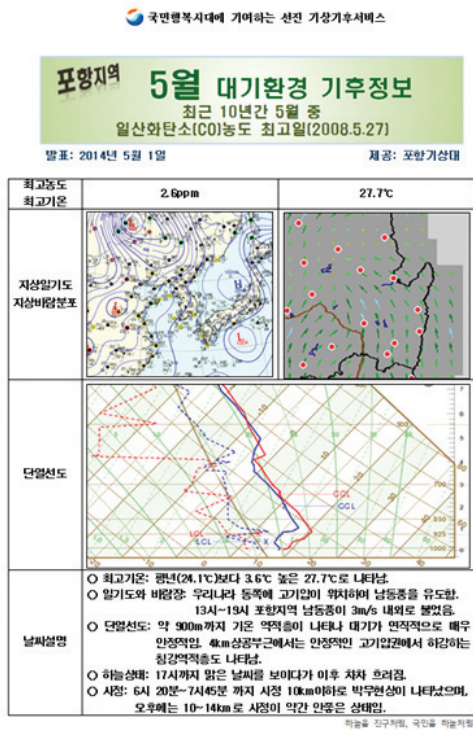
기상청 국지모델에서 생산된 바람자료를 가공하여 2차원 바람정보를 웹 및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일 4회 업데이트되며 바람장 뿐 아니라 오염물질의 수렴 가능지역, 바람의 경로추적도 함께 제공된다. 포항시청 뿐 아니라 대기환경감시요원에게도 제공되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에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서비스 예시는 아래와 같다.



활동 3. 기후서비스 분야

기후서비스는 대기환경 기후정보와 오존·자외선 기후정보 두가지로 제공된다. 대기환경 기후정보는 과거 포항지역에 대기오염농도가 높았을 때의 기상특성을 제공하며, 오존·자외선 기후정보는 포항지역에서 관측한 오존과 자외선의

연변동과 지수에 따른 인체 위험정도를 제공한다. 기후서비스를 통해서 환경관리 담당공무원의 기상분야 시야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보건소에도 제공되어 지역민 간접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포항시의 긍정적 반응

포항시청에서 본 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포항시청 대기환경 담당공무원이 매일 서비스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연락체계로 공백 없는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보안을 위한 시청의 적극적인 요구로 나날이 고품질의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 소감 및 다짐

‘무한도전 기상기후서비스’를 통해, 포항시 지역현안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적극적인 지역기상담당관이 되어야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지역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 하고,
지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이 없어질 때 까지! SNS 방재업무 소통, ‘방재한울타리+’ 운영

광주광역시 지역기상담당관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주사보 원효성



“
다짜고짜 전화 한통이 걸려온다. “예보관님 왜 기캐그룹(기상캐스터 그룹) 카톡 확인 안 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1’이 안 없어진 것 다 봤거든요!” 광주KBS 기상캐스터의 말이다. “아 그래요? 계속 카톡하시죠~” 하고 웃으면서 다시 방재한울타리 기상캐스터 그룹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방재한울타리 그룹을 확인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활동요약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0%로 전 세계 1위이며, SNS 소통창구인 카카오톡의 국내 가입자 수는 3천명이 넘어가고 있어, 전 국민의 눈과 입을 대변한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방재한울타리는 지역기상담당관이 그 지역의 기상특성에 맞는 카카오톡 그룹의 운영자가 되어 방재담당자나 기타 기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폭염,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 예상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4년의 경우 방재담당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 후 범정부수습대책본부와 잠수사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게까지 확대 운영하여 양방향 소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 방재한울타리+ 시스템 구축 및 광주·전남·전북지역에 19개 그룹 개설 운영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수색작업을 위한 기상정보 지원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기상정보 지원
- 방재한울타리와 나라e음을 병행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 왜! 방재한울타리+(플러스) 인가요?

사실 방재한울타리는 작년 6월에 광주관할 지역 3개 그룹(광주, 영광·함평, 장성·담양·화순)을 개설하여 유관기관 17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방재담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작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그룹운영자와 기상 정보를 받는 수요자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SNS를 통한 기상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달과 양방향의견 교환은 매우 용이하여, 방재한울타리 운영의 만족도는 높았고, 다른 시·군에도 확대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사용자 및 운영자들 모두 신속하게 스마트폰으로 텍스트 입력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거쳐 방재한울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적용한 방재한울타리+ 를 5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 방재한울타리+ 시스템 구축 19개 그룹 개설

방재한울타리+ 지역기상담당관이 위험기상 예상 시 유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해 브리핑 자료 등 최신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는 상황 인지 후 방재대책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지역민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설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기상청은 PC버전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기존 3개 그룹에 기상 캐스터 그룹, 지역 기상대 운영자 정보공유를 위한 운영자 그룹을 추가했다. 기존 스마트폰 전용 카카오톡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만 전송 되었지만, PC버전은 모든 형태의 파일(text, .hwp, .ppt, .jpg, .gif, .pdf, .mp4, .mov)이 전송 가능하고, 텍스트를 신속하게 입력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상대도 특성에 맞는 그룹을 구성하여 호남지역에 총 19개 그룹을 운영 하게 되어 모든 지역에서 소통은 시작되었다. 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동영상제작 배경과 로고를 제작하고, 사용방법을 전 지자체에 전파하였다.



카카오톡 국내가입자 수: 3천만명



방재한울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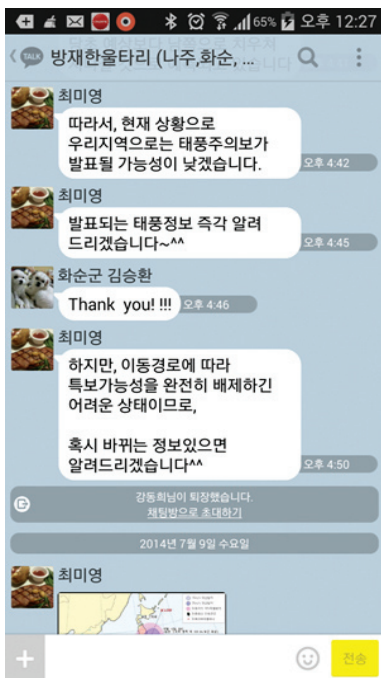


호남지역 19개 그룹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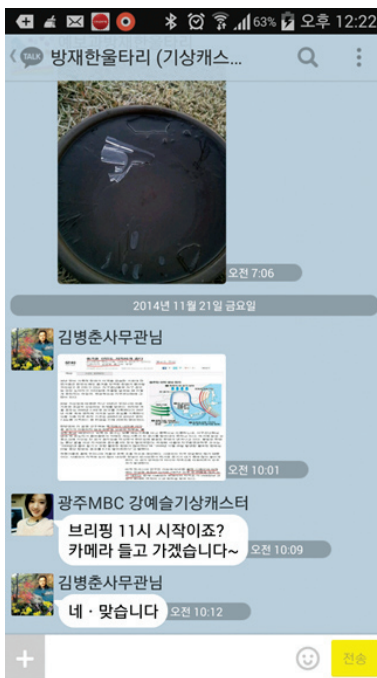
» 방재담당자는 지역민에게, 기상캐스터는 시청자에게

방재담당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이후 진행될 위험기상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방재담당자가 솔선하여 다른 직원을 초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그룹의 구성원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기상정보를 지역민들의 방재대책 정책결정에 활용하게 되었고, 지역기상담당관의 수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친밀한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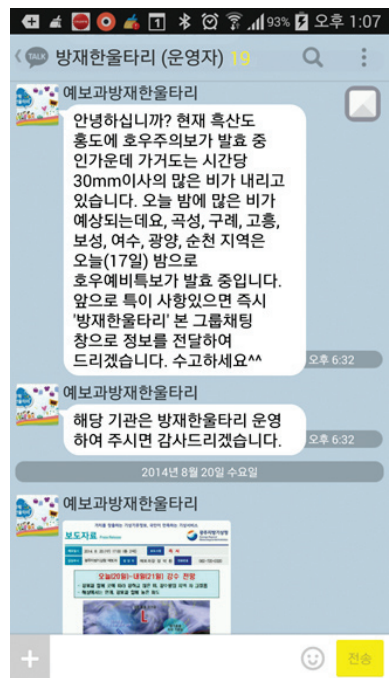
기상캐스터는 보통 5시에 출근하여 그 날의 기상 이슈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를 구성한다. 지난 11월 19일 광주에 첫 얼음이 얼었을 때, 첫얼음 사진을 제공하였고, 기상캐스터는 첫 얼음 사진을 통하여 겨울이 다가왔음을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방송에서 표현해야 할 기상용어를 수시로 묻고, 한 주간에 기상테마를 그룹채팅을 통하여 활발하게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 방재담당자 그룹



기상캐스터 그룹



광주(청) 소속기관 운영자 그룹

» '세월호' 참사에서 빛을 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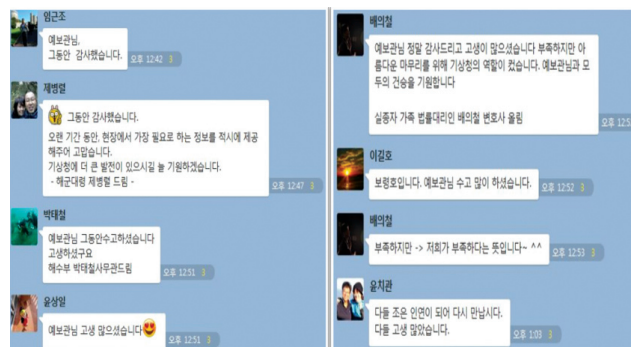
2014년 4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예보과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하게 예보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초기대응을 시작했다. 탑승인원 476명 중 172명만이 구조되고, 계속해서 수색작업이 이어졌기 때문에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분위기는 침통할 수 밖에 없었다. 하루 두 번씩 참여하는 대책회의에는 유가족도 참석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참담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 속에서 광주지방기상청도 가장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특히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유가족 및 잠수사에게 날씨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재한울타리 그룹을 구성하여 3시간마다 예보와 관측실황을 제공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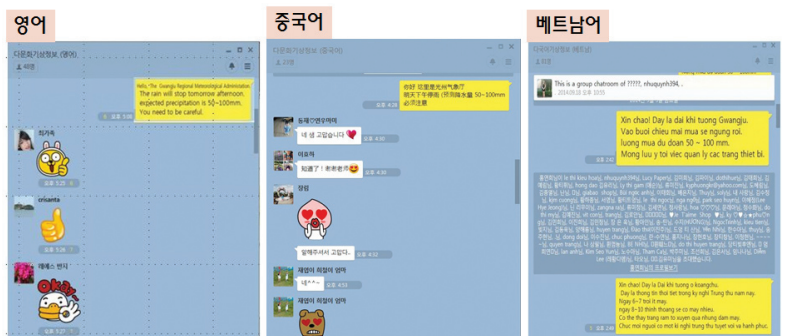
잠수사 및 사고수습 관계자 감사인사

» 팽대신 닭? 팽대신 봉황! '다국어 기상정보 서비스'로 확대

국제결혼, 이민, 취업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모국어로 번역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당초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에 잠시 좌절을 느끼기도 했지만, 카카오톡 그룹을 새롭게 만들어 기상정보를 제공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그룹을 만들고, 업무협의를 통해 다문화센터 담당자가 기상정보를 원하는 이들을 그룹에 초대함으로써 개인휴대폰 전화번호가 수집이 되지 않게 되어 반대했던 담당자는 물론 그룹에 속한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국어기상정보 서비스(9.1~)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지원

» 방재한울타리+ 와 나라e음의 공동 활용

신속한 소통을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그룹채팅의 효과가 매우 좋으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초 동영상을 제작하여 브리핑 영상을 전달 할 계획도 있었으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다. 이를 한 번에 해결 해 주는 것이 나라e음 영상회의의 시스템이었다. 영상회의를 통한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 태풍 너구리, 나크리, 풍원 북상 시에는 방재한울타리와 나라e음 병행하여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재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수가 있었다.



방재한울타리+ 와 나라e음의 공동 활용

» '1'이 없어질 때까지 소통은 계속 된다.

시대가 발달 할수록 소통의 창구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라는 용어가 있듯이 얼마나 그 시대에 융성한 소통문화에 빨리 적응하여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기상담당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SNS 전성 시대이다.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1'이 없어질 때까지 소통은 계속 된다.

허벌나게 좋아부러요~

‘광양매실 명품 만들기’를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광양시 지역기상담당관
순천기상대 기상서기보 변가영



“

섬진강 줄기 따라 굽이굽이 흘러내려오는 강물과 일조량 풍부한 구릉지가 만나 우리나라 최대의 매실 생산지가 된 광양은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활동하면서 협업과 공유, 소통과 개방의 자세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지역이다.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인의 위(胃) 평화시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주욱~ 노력하려고 한다.

활동요약

매실 생산량이 많은 전남 지역 중에서도 전국의 25%정도의 매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광양 지역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실 산지이다. 또한 지자체 주요 역점산업으로 선정되어 있어,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상품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안지역에 가까운 만큼 태풍과 호우 등의 위험기상도 많아 ‘방재 한울타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 방재 SMS’를 통한 수시 방재기상지원, 여름/겨울철 업무협약(연4회)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순천 기상대의 지역기상담당관은 올해도 발로 뛰고,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떴다.

» 화려했지만 아쉬운 광양의 봄

2012년 봄, 광양 국제 매화축제는 성황리에 개최되기는 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매화개화가 늦어져 행사 담당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한편, 늦서리가 많이 내려 매화가 떨어지는 현상도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순천기상대에서 ‘날씨 맞추기’에 발 벗고 나섰다.

매실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광양시 다압면, 진월면의 경우에 서쪽으로는 백운산, 동쪽으로는 섬진강이 위치한 구릉지이며, 높은 일조량으로 광양시가 전남 동부 해안으로 분류됨에도 내륙적인 특징을 많이 보이는 곳이다. 기상요소의 경우

다압면의 연 평균 기온은 14.3℃, 평균 최저기온은 6.9℃, 최고기온은 17.7℃ 정도이며 연 강수량은 약 1900mm정도로 많은 편이지만, 구릉지라는 특성상 배수가 잘 되는 지형을 하고 있다.

» 목표는 하나다!



광양 지역 매실농가는 물론 농민과의 직접적인 대화,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의 대화도 이루어졌다.

광양 매실의 2012년 생산량은 저조한 편이었다. 예년보다 농가와 재배면적은 늘어났지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에 따른 단가도 올랐다. 이에 순천기상대의 지역기상담당관들이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반신반의하며 찾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날씨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 업무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가 나누어 졌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과연 매실에 필요한 기상요소가 무엇인가요?”

지역기상담당관들과 농업기술센터, 농협과 농민. 이들 모두가 의견을 모아 만든 것이 바로 ‘광양매실재배 기상정보지’이다.

» 어머, 이건 꼭 봐야해!

광양매실재배 기상정보지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동네예보, 주간예보를 담는 것이 아니었다. 광양시에서 관측되는 실질적인 관측 자료를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농업시설 피해정보, 농약 살포 정보는 물론이고, 전날의 습도와 뿌리에 영향을 주는 지중온도까지 실속있게 짝퉁 채워 넣었다. 물론, 우리 지역의 동네예보와 주간예보를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이 날씨에 따라 그날의 작업을 결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은 매실 수확량도 10%가량 증가하고, 우수한 품질의 매실이 생산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광양 매실 재배 기상정보(순천기상대)

2014년 11월 14일 17시 발표

● **독보상차 및 기상현황**

기상정보 현황	〈비하중보 현황〉		〈동해상온〉	〈동해상강도〉
일출	- 일출		- 출동	- 서풍 및 호파 동풍

○ **기상현황**

○ **정성(매실) 기준 및 영산창 차질현황**

물리(매실) (단)	8.5	물리(영산창) (단)	0.1	물리(매실) (단)	13.06
물리(매실) (톤)	200	물리(영산창) (톤)	0	물리(매실) (톤)	3.5
매실(매실) (단)	0.8	매실(영산창) (단)	0.2	매실(매실) (단)	0.3
매실(매실) (톤)	20	매실(영산창) (톤)	5	매실(매실) (톤)	7.5
기온(매실) (도)	2.6	기온(영산창) (도)	18.2	기온(매실) (도)	4.9
습도(매실) (%)	62.0	습도(영산창) (%)	72.7	습도(매실) (%)	62.7
우량(매실) (도)	0.2	우량(영산창) (도)	13.7	우량(매실) (도)	0.0
우량(매실) (톤)	0.0	우량(영산창) (톤)	13.5	우량(매실) (톤)	0.0
우량(매실) (단)	0.0	우량(영산창) (단)	10.5	우량(매실) (단)	0.0

○ **당기예보**

날씨 (11.14(목) ~ 11.20(수))

시간	00	03	06	09	12	15	18	21	00	03	06	09	12	15	18	21	00
날씨	☀	☀	☀	☀	☀	☀	☀	☀	☀	☀	☀	☀	☀	☀	☀	☀	☀
강수량(m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온(도)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중기예보**

일	11.14(목)	11.15(금)	11.16(토)	11.17(일)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11.22(금)	11.23(토)	11.24(일)	11.25(월)	11.26(화)	11.27(수)	11.28(목)	11.29(금)	11.30(토)	12.01(일)
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도움되는 정보 꼭꼭 채운 기상정보지



» 대한민국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한민국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는 바로 매화축제다. 2013년의 매화축제는 그야말로 매화의 절정이었다. 매화 개화 시기에 딱 맞춘 축제 기간에 축제 개최 조금 전부터 아름답게 매화가 피기 시작해서, 끝날 무렵에 아스라이 지는 매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전 해의 아쉬움이 그대로 잊히는 순간이었다. 매화문화축제에 기상사진전을 개최한 순천기상대 지역기상담당관들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가득했다. 이 기세를 이어 2014년 광양 국제매화문화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성황리에 개최된 2013, 2014 광양 매실 문화축제!

» 귀를 기울이면...

광양시 지역에 여름이면 불어 닥치는 위험기상도 골칫거리였다. 이에 순천기상대에서는 방재한울타리로 지자체의 방재 담당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각종 지역 언론사와의 월 2회의 기고문을 통한 정기적 교류, 광양시청,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약도 실시하였다. 지역의 큰 사업인 만큼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큰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방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예상 강수 피크타임 등을 일선의 예보관들이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광양만 신문과의 업무협약



순천기상대의 기상칼럼 보다가세요~



우리지역 기후변화 바로알기!



SNS를 통한 방재기상정보의 신속한 전달도 잊지 않고!

» 2014, 발전을 위해 하나 되는 우리

2014년은 모든 과수가 풍년이었지만, 매실 농가에는 흑독한 한 해였다. 매실 생산량이 전국에 걸쳐서 늘어나면서 매실 가격이 푹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실망하는 농민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이가 더 많았다. 2014년 지역기후서비스 순회 간담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양의 기후변화에 대한 상세한 접근, 이에 따른 병충해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광양매실과 인연을 맺은 지 햇수로 3년 째,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는 자세를 늘 몸에 배게 한 광양시의 지역기상담당관은 매실이 전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순천기상대의 모든 지역기상담당관들이 꾸준히 함께 노력하려한다.

완도 사랑! 함께 해요, 우리!

완도군 지역기상담당관
완도기상대 기상주사보 김미옥



“

완도는 우리 몸에 좋은 전복, 해조류 등이 풍부하다.

그래선지 완도의 지명 앞에는 ‘건강의 섬’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완도는 내게 낯선 타향이지만 완도를 연인처럼 생각하고 지자체와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면서 연인에게 주는 선물 같은 좋은 기상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활동요약

2014년 완도기상대는 건강의 섬, 완도의 유관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기상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다.

- 첫째,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 시 맞춤형 기상정보 지원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다.
- 둘째, 2014 현장연구과제로 ‘해양관측자료를 활용한 특정관리해역 해양기상특성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기상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 셋째, 지역기후서비스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자체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도의 특색에 맞는 기후서비스 지원을 모색하였다.
- 넷째, 태풍 대비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강화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다.
- 다섯째, 행복나눔행사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상정보서비스 개발에 힘을 모았다.

»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상정보 지원

완도기상대는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관련하여 (재)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와 행사에 앞서 수차례 만나 성공적인 기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맞춤형 특별기상지원 형식 및 제공방법, 배너 연결, SMS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서 개막식(4.11)부터 폐막식(5.11)까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맞춤형 기상정보와 위험기상을 적시에 알리고, 관람객을 위해 박람회장 상세날씨정보를 제공하였다.

박람회장 맞춤형 기상정보는 현재날씨, 1시간 초단기예보, 3시간 동네예보, 10일 중기예보 및 생활기상지수가 박람회장 홈페이지(www.wandoexpo.com)에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장소에 이동식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하였다.



해조류박람회 기상장비 설치·운영(4.11~5.11)

» 해양관측자료를 활용한 특정관리해역 해양기상특성 연구



완도기상대가 관할하는 남해서부앞바다의 국지해상예보구역인 전남서부 남해앞바다 중 평수구역에 대해 해상기상특성을 파악하여 예·특보업무에 활용하고자 2014년 현장연구과제로 '해양관측자료를 활용한 특정관리해역 해양기상특성 연구'를 선정하고 전 직원이 연구원이 되어 수행하였다. 특히, 유사한 연구과제로 현장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상대 간의 협업 및 조사·분석 노하우를 공유하여 활용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7월 2일에는 완도기상대에서 현장연구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완도기상대를 비롯한 군산·여수·순천기상대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연구과제별 조사·분석기법 및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협업사항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네 차례의 연구원회의와 항로 실습 등을 통해 양질의 해양기상 특성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11월 10일 현장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완료하였다.

현장연구 합동세미나(7.2)

» 지역기후서비스 간담회 실시

완도기상대는 8월 12일 완도관광호텔에서 '완도의 기상·기후변화 서비스의 방향'을 주제로 지역기후서비스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상·기후변화 서비스에 대한 협업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신우철 완도군수 등 11개 기관장과 기상·기후변화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완도기상대의 기상·기후서비스 및 업무 소개를 하고, 기후변화 서비스에 대한 기상대의 역할과 기상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의 자리에서 완도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도 지역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에 대하여 기상대의 선제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완도기상대는 지자체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자료 제공을 약속하였다.



완도기상대 기상·기후서비스 및 업무 소개



지역기후서비스 간담회(8.12)

» 태풍도 놀란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제8호 태풍 '너구리'와 제12호 태풍 '나크리' 등에 대비하여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지역 언론에 태풍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자체 방재회의에 참석하여 태풍 이동경로 설명 및 관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브리핑하였다. 이렇게 태풍도 놀랄 정도로 강력한 지역기상담당관의 선제적 방재기상 활동은 태풍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태풍 '너구리' 완도군방재회의의 브리핑(7.8)



태풍 '나크리' 완도군방재회의의 브리핑(8.1)

» 완도기상대의 '완도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민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수시로 기상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친근한 완도기상대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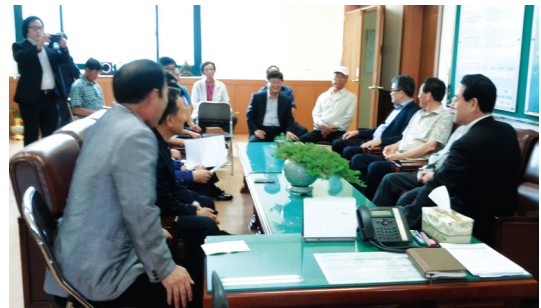
6월 2일, 완도군 국제행사에 적극적인 기상정보 지원에 대해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7월 19일 군외면에서 진행된 행복나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함께 하였고, 이날 행사장을 찾은 완도군수 등 지역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기상정책을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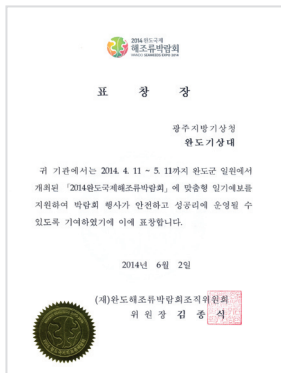
10월 17일, 지역 맞춤형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4 현장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광주지방기상청 최종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행복나눔행사 참여(7.19)



기상정책 홍보(7.19)



2014 해조류박람회 '표창장'(6.2)



2014 현장연구과제 발표회 '우수상'(10.17)

» 향후 계획

완도기상대는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전북산업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완도전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후정보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은 완도의 주요산업이자 효자상품으로 완도의 전북 생산량은 전국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당연 전북의 본고장은 완도이다. 그런데 최근 완도전북 생산량이 주춤하고 있어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함께 완도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적의 전북 양식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연구 등을 통해 완도의 전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전시 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상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종합기상정보선물세트 배달부 지역기상담당관!

가평군 지역기상담당관
동두천기상대 기상서기 오병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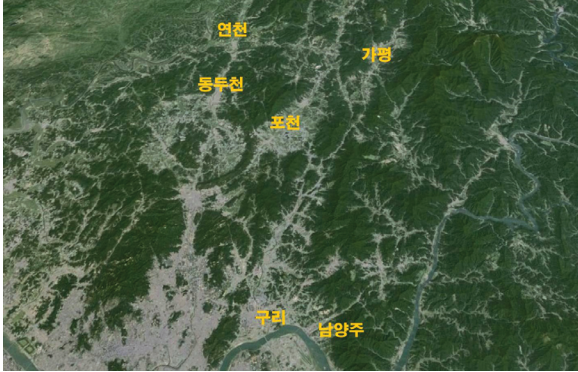
어색하고 딱딱했던 업무협의회가 지자체 직원들과의 대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비가 온다고 하면 꼭 지역기상담당관과 통화를 해야 맘이 편하시다는 방재업무 담당자분들..
이제는 지자체와 기상대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업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상문화에 대한 관심을 얻기 위하여 동두천기상대가 준비한 종합기상정보선물세트, 그 선물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활동요약

동두천기상대에서는 지역기상담당관의 주요 업무인 방재업무 외에도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생산 및 지자체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관광 기상기후정보 달력」과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연구과제, 그리고 다양한 소통활동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조금씩 알아가는 설레임..

경기북동지역의 지형은 동고서저(東高西低)형으로 산악지대가 많다. 특히, 포천과 가평은 면적도 넓은 데다 높고 낮은 산이 많아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편차가 큰 편이라 예보하기 까다로운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만큼 관할 지역의 매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꾸준한 업무협의, 지형답사, 상습재해지역 현장방문 등 동두천기상대의 노력도 뒤지지 않는다!



경기북동지역 지형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지형답사(한탄강)



상습재해(산사태)지역 현장방문

» 동두천기상대가 준비한 종합기상정보선물 3종 세트!!!

선물1.. 「관광 기상기후정보 달력」

【 예전의 모습은 잊어라! 경기북동지역의 새출발! 】

동두천기상대가 관할하는 경기북동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 또는 기상재해취약지역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강화된 재해방지대책을 통한 재해안전지대로, DMZ는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주제의 지역축제로 관광객들의 눈, 코, 입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축제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상기후 정보!! 동두천기상대는 지역축제행사를 준비, 진행하는 데 행사 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 기상기후 정보를 달력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 주간 기후통계가 한눈에! 「관광 기상기후정보 달력」의 탄생!! 】

먼저, 하계 휴가철 및 주요 지역축제가 많은 달을 선정하여 과거 5년간의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일 강수량을 각 시·군별로 조사한 후 각 주간 평균값과 극값을 산출하여 작성했다. 이때, 최근 5년간의 평균값과 전년값을 함께 기재하여 사용자들이 비교하기 쉽도록 했고, 이 외에 계절관측값, 24절기, 일출·일몰 시간 등의 자료도 포함하여 행사 일정 결정 및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8월 관광 기상기후정보 달력(가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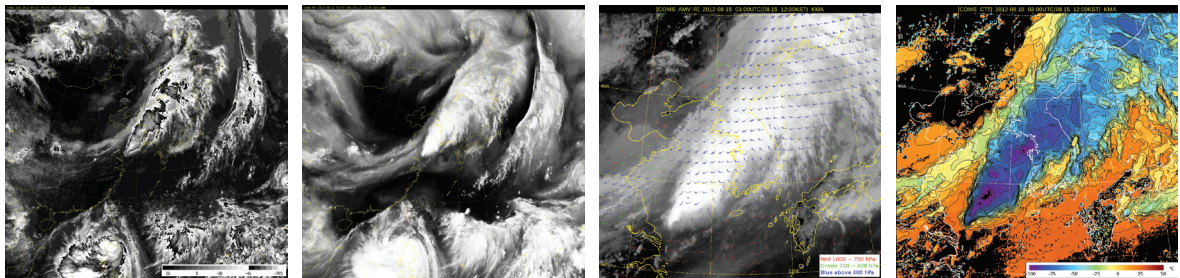


10월 관광 기상기후정보 달력(동두천시)

선물2.. 위험기상을 알아야 산다!! 「현장연구과제」수행

【 당근형 구름(Tapering cloud)에 의한 집중호우 특성 연구! 】

지난 40년동안 중부지방의 여름철 집중호우 일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도 증가했다는 사실! 특히, 당근형 구름에 의한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동안 매우 강하게 발달하여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발생 메커니즘과 전조현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현장연구과제를 통해서 천리안 위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상들을 활용하여, 서울·경기지방에서 발생한 당근형 구름에 따른 강수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당근형 구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다양한 위성사진으로 본 당근형 구름(2012.08.15 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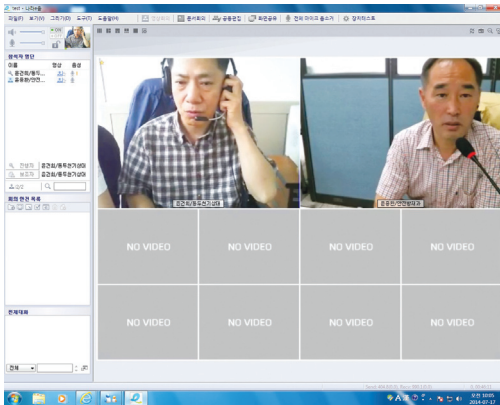
선물3.. 자주 보고 들으니 정(情)이 들어요!!

【「나라음 영상회의」로 발 없는 기상정보가 천리간다!!】

동두천기상대가 관할하는 경기북동지역은 산이 많기도 하지만 면적도 넓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하기에 인적·물적·시간적 낭비가 많았지만, 이젠 나라음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걱정 끝! 멀리 있는 지자체 직원에게도 실시간 영상회의로 양질의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상재해 대응 역량이 더욱 향상되었다.

【지역기상담당관의 수줍은 Love Letter, 「Weather Letter」】

2012년 8월 첫 소식지를 발간한 이후 반기에 한 번씩 제작하여 지역기상담당관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Weather Letter! 지역기상담당관 소식지는 지역기상담당관들의 활약상을 알릴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정책홍보의 통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며, 지자체와 지역기상담당관의 상호 소통을 강화시키는 일등공신입니다.



위험기상대비 브리핑(포천시청, 2014.7.17)



2014년 상반기 Weather Letter

» 에피소드..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지역 날씨는 꼭 우리 지역기상담당관님께 물어볼래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 즈음, 구미시청에서 구미 지역기상담당관이었던 이윤선 주무관을 찾으셨다. 당시 이윤선 주무관이 출산휴가 중이라고 전해드렸더니, 구미 지역 날씨는 구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구미 지역기상담당관님께 꼭 문의하고 싶었다며 아쉬워 하시고는 순산하시라는 인사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니, 보람을 느끼고 지역기상담당관으로의 각오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 아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겨울, 구미시청과의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때, 먼 출장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는 기상대 직원에게 감동을 받으신 구미시청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오찬 자리를 마련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기상청 직원이라면 머느리로 삼아도 좋을 것 같라며 소개팅 주선을 부탁하셨다. 아쉽게도 에피소드로 그쳤지만, 우리 지역기상담당관의 성실함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뿌듯했다.

성공적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총괄(고양시, 양주시) 지역기상담당관
파주기상대 기상주사보 김동연



“

DMZ와는 인연이 깊다.
과거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네트워크 업무에 빠지지 않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실제 DMZ 근처에서 지역기상담당관 업무를 맡고 있다.

활동요약

남북한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지정을 위해 재해예방, 안보기상, 교육 홍보,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방재업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위험기상 예상시 나라e-음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였다. 평화통일에 뒷받침이 되는 안보기상 지원을 위해 군에 설치된 AWS 점검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마정초등학교와 지자체 행사시 홍보부수를 운영하여 기상 및 기후 지식을 전파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지사 상장을 받았다. 또한 DMZ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상특성을 연구하였고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DMZ 관광 모바일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 내지역 DMZ 세계평화공원 이해하기

The demilitarized zone must live up to its name, a zone that strengthens the peace not undermines it. It is with this vision in mind that I hope to work toward an 'international park' inside the DMZ

이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 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2013년 미국 의회 박근혜 대통령 연설 중)



미의회 연설 장면(사진: 청와대)

정부는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에서 DMZ 청정지역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한때 치열하게 싸웠던 국가·국민들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무대, 인간에 의해 초토화되었으나 자연 스스로의 치유력으로 회복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이 지역을 이제 인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 [재해예방] 재해지역 오명에서 벗어나자

과거 문산과 임진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과거 상습 재해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않고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지역에 선정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4개 지자체와 방재업무협의회를 가졌으며 임진강 군남댐 홍수기 대비 모의훈련에 참가하여 신속한 기상정보 협의하였다. 또한 위험기상 예상이 나라e-음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였다.



방재업무협의회(파주)



군남담 홍수기 대비훈련



나라e음 영상브리핑

» [교육 홍보]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활동

파주기상대 인근에는 수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이 많아 이 지역의 초등 학생들은 도시의 초등학생과 같은 발전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때문에 파주기상대는 이런 학생들에게 기상기후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사무실 하나를 기상사진,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한 전시실로 꾸며놓아 견학오는 학생들에게 활용하고 있다.

기상대를 떠나 직접 찾아가는 교육 활동으로 파주기상대 인근 마정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기상과학탐험대"가 있다.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의 마정초등학교는 6학급 48명의 소규모 학교로, 기상대에서는 2012년부터 기상과학에 대한 지식 기부를 실시하여 2013년 『기상과학탐험대』로 발전시켜 경기도교육청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계속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상장



마정초등학교 방문 교육



기상상식 점자책

» [안보기상]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위한 기상지원

휴전선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리적 특성으로 기상에 대한 군부대의 견학과 교육의 최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사전에 신청된 군부대의 견학과 교육을 실제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학과 교육뿐 만 아니라 군사작전에 실제 도움을 주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사용하는 AWS 현황을 점검하여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포병이 사용하는 장약온도계의 온도비교를 통해 정확한 포사격 업무도 수행하여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군 AWS 현장 점검



항공대 기상교육



장약온도계 점검

» [연구] DMZ 관광기상기후 정보 연구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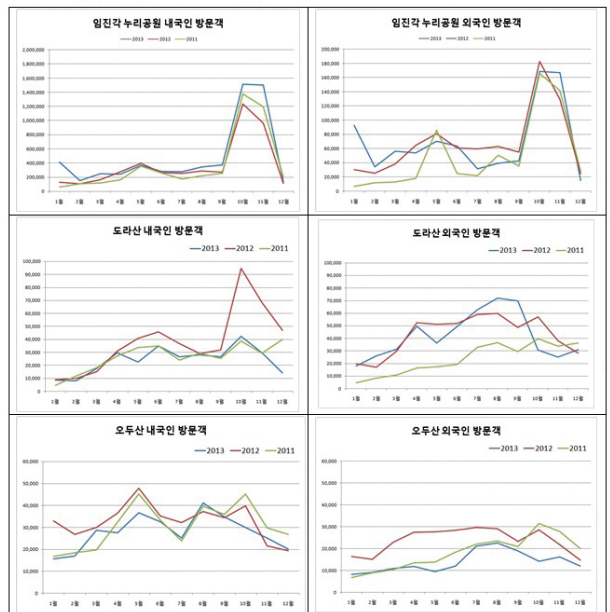
파주지역에는 제3땅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오두산전망대, 헤이리예술마을 등 DMZ 안보관광 콘텐츠가 발달되어 있고 내·외국인 접근성이 편리한 서울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파주기상대에서는 DMZ-관광 기상기후정보를 연구하고 이를 서비스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기상기후정보는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관광과 기상을 융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DMZ 세계평화공원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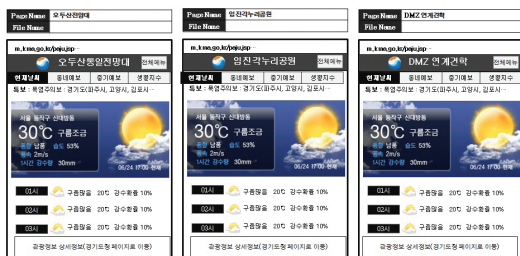


현장연구과제 워크숍

표 2.2. 관광통계(관광지농경보시스템)



관광객 통계



모바일서비스 방안

태풍전야에 불꽃을 쏘아 올리다!!!

서산, 당진시 지역기상담당관
서산기상대 기상주사보 이근수



“

고향과 인접한 서산에 근무한지 벌써 1년.
학창시절 서산 출신 동기의 고향 자랑을 귀가 따갑게 들어서인지
왠지 낯설지 않은 이곳.
지금은 고향을 떠나있는 동기의 뭇까지 더하여
서산, 당진의 지역기상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앞장선다.

활동요약

당진 왜목마을 당진애(愛) 바다불꽃 축제 개최 여부 의사결정을 위한 기상브리핑(8.1)

당진시청 관계자의 긴급 요청으로 축제종합상황실(왜목마을)을 찾았다. 당진부시장을 비롯한 축제관계자들 20여명이 자리해 있었고 태풍 나크리의 북상으로 인해 불꽃축제가 열리는 시점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있는 상황이었다. 행사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행사진행 가능한 기상조건, 소요시간, 주변의 지형특성등을 고려하여 좀 더 유리한 기상조건 시점을 언급하였다. 결국 두시간 정도 앞당겨 진행된 행사는 위험기상을 피해 무사히 치러졌다.

※ 당진애(愛) 바다불꽃 축제 : 2012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해상 바지선에서 쏘아올리는 불꽃을 해변에서 관람할 수 있는 당진 지역축제, 2013년 약 20만명이 다녀감.

»»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동쪽으로는 아산시, 서쪽으로 서산시, 남쪽으로 예산군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남양만·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화성시·평택시와 마주한다. 남부는 서산시와 예산군을 따라 내려온 가야산맥이 당진 부근까지 뻗쳐서 군내의 고지대를 이루며, 아미산(350m)서쪽에는 이배산(243m), 다불산(325m) 등의 잔구성 구릉이 발달했다. 그밖에는 산이 거의 없고 낮은 구릉과 넓은 평야지대이다. 해안선 길이는 86km이며, 유인도 4개와 무인도 5개가 있다. 겨울에는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서풍이 심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몹시 낮아진다. 여름에는 남동풍의 영향을 받는다. 연평균기온 11.4℃ 내외, 1월 평균기온 -3.8℃ 내외, 8월 평균기온 25.6℃ 내외, 연강수량은 1,180.6mm 정도이다. 서리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20일경까지 내린다.

▶▶ 이른아침 요란한 전화벨소리

2014년 8월 1일, 출근하자마자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린다. 다름아닌 당진시청 방재담당 주무관.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했다는 것은 분명 다급한 사연이 있으리라. 예상대로 북상중인 태풍의 진로에 관한 문의였고, 그 안에는 주말에 예정되어있는 축제의 개최 여부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었다.

▶▶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문지식을 쏟아 붓다

통화를 하던중 담당 주무관에게서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 축제 개최 여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왜곡마을 축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니 두시간 후인 11시까지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동시간을 빼면 회의 자료를 준비할 시간은 한시간 남짓이었지만 당진시 지역기상담당관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 부랴부랴 모델예측자료와 실황을 분석하고 당진 왜곡마을로 떠났고, 도착한 상황실에는 당진시청 부시장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국장, 안전정책실 팀장, 태안해양경찰서 직원, 행사추진업체 직원등 20여명이 자리해있었다. 남아있는 자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 뿐이어서 본의아니게 주목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고, 부시장의 “기상청에서 오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소개와 함께 주말기상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예상 자료에 따르면 태풍은 느리게 서해상으로 북상할 것이고 행사 시점에 그 영향권에 들겠으니 행사는 어렵겠습니다.” 방재 차원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야 했지만 해상 불꽃행사를 위한 바지선은 이미 인근에 정박중이었고, 여름 피서철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해온 행사인지라 그분들의 절박함이 느껴져 함께 고민을 해야했다. 행사 업체가 말하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상조건이 있었고 불꽃행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작시점, 행사장소의 지형특성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예상자료를 분석하였다. 다행히 행사지역은 남쪽과 동쪽의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것으로 보였지만 중심기압이나 이동속도등을 고려했을 때 어찌면.. 위험한 발상일수는 있지만 시간을 조금 앞당기면 행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예상 기상상황을 전달 하면서 행사를 취소할수 없다면 행사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결국 행사는 진행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주최측의 감사인사도 전달받았다.



▶▶ 태풍전야에 불꽃을 쏘아올리다!



주최측에서 한두시간 앞당겨 진행한 불꽃행사는 기상상황의 지장을 받지 않았다. 까만 어둠을 수놓는 불꽃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았겠지만, 비와 바람을 모두 피하고 행사를 취소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관계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 그 것과는 달랐으리라.

▶▶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긍정적 반응

전문가의 소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게 되어 행사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당진 시청 방재 담당자로부터 향후 더욱 긴밀한 업무협조를 약속 받음.

▶▶ 진정한 지역기상담당관의 역할

지자체로의 일방적인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에 회의적인 감정이 많았다. 때론 기계적인 반응들,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들, 업무를 떠나 나도 인간인지라 점점 상해가는 자존심을 걸잡을 수 없을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로 진정한 지역기상 담당관의 역할이 뭔지, 수요자가 바라는 바가 뭔지, 그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

우리동네 영동(永同)군의 맞춤형 지역기상담당관!

영동군 지역기상담당관
추풍령기상대 기상서기 김병준



“

영동이라고 하면 강원도 대관령 동쪽에 있는 지역을 뜻하는 영동(嶺東)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나에게 영동은 충청북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내가 지역기상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동(永同)군이다. 영동군은 내가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지역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곳으로, 그게 영동군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활동요약

영동군 지역기상담당관으로 방재,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16회의 기상 지원 실시

영동군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기상재해 절감을 위해 방재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정보와 기상이슈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동군 맞춤형 브리핑-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나라e음 위험기상 브리핑”을 통해 보다 상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위험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서비스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포도 산업 기상정보”를 유관기관 홈페이지, E-mail, Fax,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하여 영동군 포도재배 농가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영동군 학생들 뿐 아니라 유관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기상교육을 통해 기상지식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국악과 과일의 고향 영동군!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충청북도 영동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남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경북 김천시·상주시, 서쪽은 충남 금산군, 남쪽은 전북 무주군, 북쪽은 충북 옥천군과 접해있다. 영동군은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동쪽에는 황악산(1,111m), 서쪽에는 천태산(715m) 등이 아름다운 능선을 자랑한다. 남쪽으로는 자연림으로 유명한 민주지산(1,242m)과 삼도봉(1,176m) 등 높은 산들이 있고, 북쪽에는 백화산맥의 포성봉(933m)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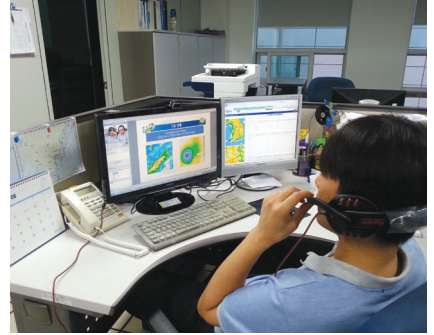
있다. 영동군 기상관측의 대표지점인 추풍령은 내륙이면서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분다. 연평균강수량은 1187.1mm이며, 연평균기온은 17.3℃이다.

» 활동 1. 우리동네 최적화 기상브리핑 『브리핑 레시피』

추풍령기상대는 위험기상이 예상되면 전화와 Fax 등으로 기상상황 및 전망 등을 알리고,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기상브리핑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나라예음을 이용한 위험기상 브리핑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풍령기상대에서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시, 신속하게 나라예음을 통한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브리핑-레시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방재유관기관 입장에서 기상정보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제공받은 내용 위주의 브리핑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풍령기상대의 『나라e음 브리핑-레시피』는 과거3년 동안 발표된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8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영동군에 특화시켜 반영하였다. 또한 태풍 위험기상 시, 영동군에서부터 태풍의 현재(예상) 중심위치까지의 거리 및 유사사례에서의 영동군 기상관측자료 등의 기상기후 자료를 추가하여 광역이 아닌 영동군만의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활동 2. “과일의 천국”영동군을 위한 산업기상정보!

“과일의 천국” 영동군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양·기상조건·재배기술이 우수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의 최적지로 꼽힌다. 영동군의 대표 과일인 포도는 재배 면적이 2,200ha로 전국 점유율 12.7%, 생산량은 33,193톤(약 1억 송이)이다.

추풍령기상대에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부터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매해 5월부터 8월까지 『포도 산업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도 산업기상정보는 기존의 Fax나 E-mail, SMS 방식의 기상정보 제공 뿐 아니라,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농업기상정보를 게시판에 매일 직접 등재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매주 “주간 산업기상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Yeongdong County. The navigation bar includes '영동군청' (Yeongdong County Office), '문화관광' (Culture & Tourism), and '미디어' (Media). The main menu has '전자민원' (E-Citizen Services), '군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군정소식' (County News), '행정정보' (Administrative Information), '영동소개' (Introduction to Yeongdong), '분야별정보' (Information by Sector), and '전체메뉴' (Full Menu). The '농/축산업' (Agriculture/Industry) section is highlighted, with sub-links for '귀농귀촌' (Return to Village), '농업기술정보'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작목반/농원안내' (Cultivation Team/Village Guide), '농기계임대'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농업인 단체/연구회' (Agricultural Organizations/Research Clubs), '축산정보' (Livestock Information), '가족위생' (Family Hygiene), and '농업진흥정보' (Agricultural Development Information).

The screenshot shows the '농업기상정보' (Agricultural Industry Information) page. It features a sidebar with '환경농업' (Environment Agriculture), '주간농사정보' (Weekly Farming Information), '영농순기표' (Farming Schedule), '병해충종합방제' (Integrated Pest Management), '농산물해대책' (Crop Protection Measures), and '산업기상정보' (Industry Weather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산업기상정보' (Industry Weather Information) and shows a list of reports for grapes. The table below contains the following data:

번호	제목	작성지	작성일	조회수	파일
285	포도 주간산업기상정보(8월5주)	김병준	2014-09-29	2	[File Icon]
284	포도산업기상정보(2014.09.29)	김병준	2014-09-29	2	[File Icon]
283	포도산업기상정보(2014.09.28)	김병준	2014-09-28	3	[File Icon]
282	포도산업기상정보(2014.09.27)	김병준	2014-09-27	4	[File Icon]
281	포도산업기상정보(2014.09.26)	김병준	2014-09-26	4	[File Icon]
280	포도산업기상정보(2014.09.25)	김병준	2014-09-25	5	[File Icon]
279	포도 주간산업기상정보(8월4주)	김병준	2014-09-22	8	[File Icon]
278	포도산업기상정보(2014.09.22)	김병준	2014-09-22	7	[File Icon]

» 활동 3. 영동군 기상기후교육의 전도사!

추풍령기상대는 평소 영동군과 기상관련 정보의 긴밀한 교류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의 활발한 업무교류를 하고 있으며, 기상변화를 신속히 전파하여 자연재난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 여름철·겨울철 방재기간 전에는 영동군 방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동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상기후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상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긍정적 반응

영동군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을 하면서 기상에 관한 문의전화는 예전에 비해 몇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역민이나 방재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지역기상담당관을 활용하는 횟수도 대폭 늘어났다. 또한 충북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들의 영동군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내용에 관한 5건의 언론보도는 기상대와 영동군 사이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새로운 다짐

영동군 지역기상담당관의 하루는 영동군 대표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영동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영동군에 해줄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지만, 철저한 기상감시와 정확하고 가치 있는 기상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역기상담당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재해예방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원 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은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 및 기상자료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강원지방과 울릉도·독도 및
동해 중부해상의 세분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One-Stop 서비스』

삼척시 지역기상담당관
동해기상대 기상주사보 김원학



“

동해기상대 관할지역은 육상(평지·산간)과 해양이 있어서 위험기상 예상 시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위험기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상재해와 관련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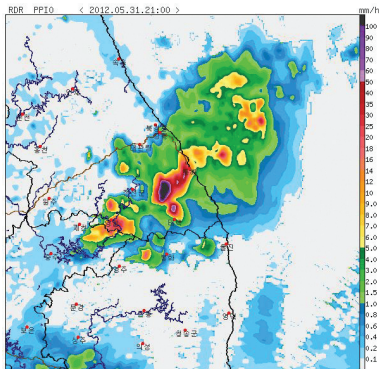
활동요약

삼척시는 2008년부터 폐광지역(도계)대체 산업으로 명품·머루 육성화 사업추진하면서 기상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동해기상대와 삼척시 농업정책과 담당자간의 소통을 통하여 13년 4월부터 맞춤형 삼척 도계 포도·머루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지원을 기상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90명에게 실시하여 12년 730톤에서 13년 752톤으로 증가량 22톤으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7천 여 만원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14년 4월 삼척시 농업정책과·삼척시농업기술센터·동해기상대 간의 융합 행정으로 현재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문자 수요자는 14년 1,300여명으로 확대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위험기상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One-Stop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지형적인 특성 및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 (지형적인 특성) 삼척시는 2008년 폐광지역(도계읍)의 대체산업인 명품 포도·머루 육성화사업 지역으로 해발고도 400m 산간지역에 위치
 - 늦서리, 돌풍, 우박, 폭염, 낙뢰 등의 잦은 특이 기상 발생 지역

-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재배지역의 잦은 특이기상에 따른 품질저하 등 농가소득 감소로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지원 필요성 대두
 - 삼척 도계·하장지역 우박피해 발생 : '12. 5. 31.(목) 21:00~21:15(15분간)



5.31 레이더영상터



하장면 속암리(지름 0.5~3cm)



우박 피해현장 하장면 토산리

-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로 고령층 심화, 고령층은 전자기기(스마트폰)의 사용 미흡으로 기상정보의 접근이 어려움
 - 고령층 새벽시간대 TV뉴스 시청으로 당일의 날씨를 인지
- 위험기상(특·정보)발생 및 예상시 특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의 신속한 지원으로 포도·머루 및 특용작물 피해를 경감시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 기여

▶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였는가?

- '12년 벼 병해충 기본방제 협의회 참석('12. 4. 5.)
 - 농업기상정보 관련 삼척시 농업정책과 담당자와 구두 업무협의
- 삼척시 농업정책과 협의 사항('12. 8. 14.)
 - 삼척시에서 사용하는 문자서비스 활용방안 협의하였으나 외부에서 사용 불가능하여 문자서비스 입력 가능한 방안 모색
- 삼척 도계 포도·머루 맞춤형 농업기상지원 계획 수립('13. 4. 12.)
- 삼척 도계 포도·머루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지원 실시(주/5회)
 - 지원농가/시기 : 90농가/'13. 4. 15.~ (기상청 예산/모바일타운)

- 내 용 : 내일 날씨, 이슈·유의사항 등

시간	10시(내일 날씨)	
문자 양식		- 도계읍의 내일 날씨(기온) 예) 흐리고 비(1~10), 맑음(5~17) 등
		- 「기상특보·기상현상 별」 문구 중 「이슈사항」 예) 황사주의, 저온주의 등
		- 「기상특보·기상현상 별」 문구 중 「유의사항」 예) 농작물 관리 요망

- 삼척 도계 포도·머루 맞춤형 농업기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3. 8. 26)

- 맞춤형 농업기상지원 대상자 확대 협의

- 삼척시 농업정책과 희망농가 수요조사('13. 9. 13)

- 제목 : 맞춤형 농업기상정보제공을 위한 희망농가 전수조사

- 조사기간 : '13. 9. 16~9. 30(추가연장 11.29)

- 언론사 보도



뉴스 1



강원신문

- 삼척시 농업정책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동해기상대간 융합행정으로 특화된 맞춤형 기상정보 지원 협약('14. 4. 18.)

- 농작물 피해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 농업정책 수립 지원

- 제공대상, 제공시기, 문자 서비스 활용 방안 등

- 삼척시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집중관리 특용작물 농가까지 확대 시행

- 맞춤형 농업문자 서비스 : 삼척시 농업인 90농가 → 1,300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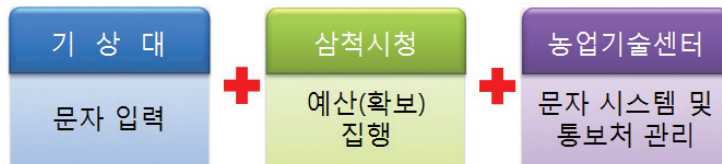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삼척시 농업정책과

▶▶ 맞춤형 농업기상지원 확대 시행('14. 6. 9.)

- 위험기상(특·정보) 및 예상 시 전달 방법 개선
 - 농업과 관련된 기상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기상상황이 예상되면 동해기상대에서 문자메시지 작성하여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의 문자시스템으로 통보하여 처리
 -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동해기상대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삼척시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Win-Win 전략



⇒ 시행 전(2014.6.9) 기상대에서 전달(문자입력 - 예산집행 - 시스템관리)

- 특이 기상 발생 및 국지적 현상 예상 시 수시 제공(낙뢰, 우박, 서리 등)

맞춤형 문자서비스 예시

시간	특이 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문자 양식		- 특이 기상 예) 인근지역 발생 시 가능성 전파
		- 「기상특보·기상현상 별」 문구 중 「이슈사항」 예) 폭염주의, 호우주의, 대설주의 등
		- 「기상특보·기상현상 별」 문구 중 「유의사항」 예) 농작물 관리 요망

» 농가소득 증대 실현으로 기상청 이미지 제고 기여

- 정부 3.0 실현을 위한 소통 강화
 -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지원 업무협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대상 농가 확대 실시
 - 농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 의사결정 활용 리스크 완화
 - 위험기상 활용 농가의 증가(90→1,300여명)

전송결과 · 예약조회

● 전송 정보



보내기 제목	20일~22일까지 많은 비
전송 일시	2014.08.20 16:53
메시지 유형	문자메시지
수신처수	597명
회선번호	131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모음함에 저장됩니다. 저장

전송결과 · 예약조회

● 전송 정보



보내기 제목	20일~22일 많은 비
전송 일시	2014.08.20 16:53
메시지 유형	문자메시지
수신처수	688명
회선번호	131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모음함에 저장됩니다. 저장

- 농가에 필요로 하는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으로 위험기상 선제적 대응
 - 특용작물 피해 최소화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12년 730톤 → '13년 752톤으로 22톤 생산량 증가(금액 3억 7천여만원)
- 관계기관 간 소통 · 협업체계 구축
 - 맞춤형 기상정보 지원 업무협의, 문자서비스 시스템 사용 공유 등 협업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과의 유대감 형성
 - ※ 협업기관 : 동해기상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기상정보 전달
- 수요기관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서비스로 예산절감 기여
 - ※ 삼척시 농업정책과 '14년도 소요예산 확보 : 2,000천원
- 고령층에게도 위험기상정보 수신 편리
- 삼척시 전체 농가구(약 5,700) 중 23% 맞춤형 농업기상정보 활용

» 향후 수요자 니즈에 맞는 기상기후 서비스 확대 시행

- 삼척시 농업인 50% 추가와 고랭지 배추재배 430농가 수요자 확대
- 삼척수산업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하여 어업종사자에게 맞춤형 One-Stop 서비스 확대

매력 물씬 지역기상담당관 국민 행복 플러스(+)

영월군 지역기상담당관 기상주사 임금식
정선군 지역기상담당관 기상주사보 권중모



“

굽이굽이 험한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동강을 보고
있노라면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기도 하지만 동강에
사로잡힌 인명과 재산을 생각하면 기상의 양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역기상담당관은 날씨의 양면성에
대응해 복합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다.

날씨가 좋다면 지역주민에게 자연의 혜택을 선사하고,

위험기상이라면 기상재해의 최전방에서 선두지휘 하는 사령관으로서 말이다.

자연의 혜택을 선사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서비스와 위험기상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통합 방제
서비스로 국민행복 “Up”, 기상재해 “Zero”를 실현하여 우리 지역 인기 만점,
매력 넘치는 지역기상담당관이 되고자 다짐해 본다.



활동요약

방재업무를 위한 위험기상 방문 브리핑은 물론 지자체 CCTV를 활용한 기상실황 감시, 영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기상정보 제공, 공휴일 및 야간 SMS 요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행사에 대한 맞춤형 기상서비스로 최고 품질 과실생산과 관광산업 발전 등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상콘텐츠 개발과 운영으로 지역기상담당관에 가치를 높이고 있다.

»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

영월기상대는 강원남부산간의 기상학적 요충지인 영월군과 정선군을 담당하고 있다. 북으로는 차령산맥, 남으로는 소백
산맥, 동으로는 태백산맥으로 둘러싸이다보니, 망경대산, 아래산 등 1,000m 이상의 산들이 즐비하다. 자연히 하천은
산굽이를 심하게 곡류하고, 관할지역의 해발고도 차이가 크다.

영월의 경우 최근 15년간 연평균기온과 연평균최저기온이 상승하며, 열대일 일수와 폭염일 일수도 증가하고, 영하일
일수와 서리일수는 감소하고 있다. 정선도 최근 12년간 최저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기상재해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지형이면서 기후변화의 위협마저 받고 있어 지역기상담당관의 활동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 매력 활동 1. 지역기상담당관의 능력, 기상재해 “Zero”

▶ 방문브리핑과 관측사각지역 해소

- 태풍, 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 예상 시 방문 브리핑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날씨 브리핑은 물론 지자체 CCTV 10소에 대한 통합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관측 사각지역 해소와 위험기상에 대비하고 있다.

▶ 긴급기상지원 운영

- 영월기상대는 현업근무자가 없는 상일근 부서로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기상정보 지원에 취약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기상담당관이 자택에서 전화, 수요자 맞춤형 SMS 등으로 기상정보를 유관기관 및 농가 등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365일 기상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문 브리핑



지자체 CCTV 10소 통합 모니터링



**지역기상담당관
기상정보 지원
공휴일, 야간에도 문제 없다.**

» 매력 활동 2. 최고 품질 과실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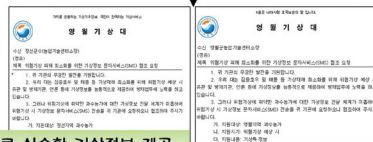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영월·정선 지역이 사과와 포도 최적의 재배지로 부상하여 2011년부터 사과 및 포도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2014년도에는 대표 사과농가와 의 간담회를 열고 기상정보에 대한 의견조치를 통해 일상적 기상정보 제공 보다는 위험기상에 대한 피해 방지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영월·정선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위험기상 시 농민들에게 신속히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 사과와 포도 생산량은 물론 품질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간담회를 통한 과수농가 의견 수렴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으로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



대표 과수농가 방문을 소동

▶▶ 매력 활동 3. “감기 조심하세요~”, 약자 지원과 지역민과의 소통

▶ 의료기상표출시스템 구축

- 기상청에서는 보건지수, 생활기상지수 등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나 전달방법이 부족해 지수가 필요한 병원에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영월의료원과의 협업을 의료기상표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월의료원 소식지에도 게재되었고 의료진, 진료 방문객 및 환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지자체 회의’ 간접참여를 통한 기상정보 효용성 제고

- 날씨는 업무계획 및 행사개최 등 의사결정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자체 회의 시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영월·정선군에 맞는 중기예보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행사일정 등 의사결정 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매주 그 지역에 맞는 7일 동안의 예보를 지자체 회의양식에 맞춰 지역기상담당관이 제공함으로써 기상정보 효용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 시나브로 지역주민속으로~

- 단증제, 정선아리랑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에 기상홍보부스를 겸한 기상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기상지원을 실시하였고 농업인들과 지역 이장단에게 향후 위험기상 정보와 기상정보 활용에 대해 전파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상대라는 이미지를 점차 심어주고 있다.



의료기상표출 시스템 구축



기상지원센터 및 홍보부스 운영

» 매력 활동 4. 기상에 대한 감성과 이해도를 높이자~

▶ 기상에 대한 감성 퍼트림과 이해도 제고

- 지역사회 봉사애(愛) 실천과 공헌을 위한 영월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기상과학교실을 운영하였고 날씨체험캠프, 기후변화 이해·대응과정과 글짓기공모전, 기상사진 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다양한 기상·기후과학교실

세계기상의 날 기념 글짓기 공모전

» 지역에서의 긍정적 반응

언제부턴가 영월군과 정선군에서는 위험기상이나 지역행사 시 지역기상담당관의 방문을 당연히 여긴다. 특히 영월군수는 직접 기상대를 방문하여 지역기상담당관과의 소통과 브리핑을 받을 만큼 지역기상담당관을 아낀다. 그 만큼 영월과 정선 지역에서 지역기상담당관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가치 상승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과수농가 주민들은 최고 품질 과수생산에 대한 기상정보를 시작 한 후부터 매년 맛있는 사과, 포도를 지역기상담당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주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로부터 감사의 그림 편지를 받는 등 지역에 공헌하는 매력적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감사 편지

» 앞으로의 다짐

지역기상담당관의 임무 수행의 기본은 내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자기 고장 기상특성에 관한 연구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완성될 때 진정한 지역기상담당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영월·정선 지역기상담당관은 자기학습, 완벽한 지역기상특성 파악 및 소통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적 기상컨설팅에 완벽을 기하고 정부 3.0 시대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 안보의 초석은 군(軍)과의 소통으로 부터!!!

철원군 지역기상담당관
철원기상대 기상주사보 박세택



“

철원하면 생각나는 것은? 춥다! 군인이 많다! 농업지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철원군과 화천군은 군사·농업지역으로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지역이다. 나는 이곳의 지역기상담당관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철원·화천이 되도록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활동요약

철원과 화천은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지역으로, 지역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며 군사지역이고
농업지역인 특성을 갖고 있다. 국가안보와 안전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현
정부 국정지표에 녹아 있듯이 철원기상대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軍)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였다. 첫째, SNS를 활용하여 군과의 양방향
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둘째는 군 기상예보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군 작전에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소통의 시작, 내 지역 알기와 나를 알리자~



철 원 기 상 대
지역기상담당관
박 세 택

239-80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79번길 26
Tel 033-452-0095 FAX 033-452-0366
Mobile 010-6372-0365 E-mail pst9309@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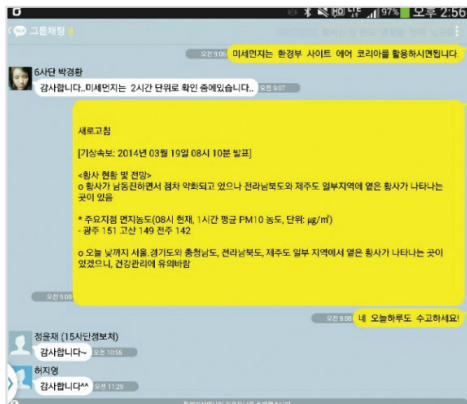
철원과 화천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며 군사지역으로 철원은
5군단(3, 6, 8사단), 화천은 2군단(7, 15, 27사단)이 철통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철원의 인구는 약 4만 5천명, 화천은 약 2만 5천
명으로 군 병력이 더 많은 지역이므로 지역기상담당관의 역할이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

기상특성은 한반도 중앙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하절기에는 집중호우,
동절기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으로 충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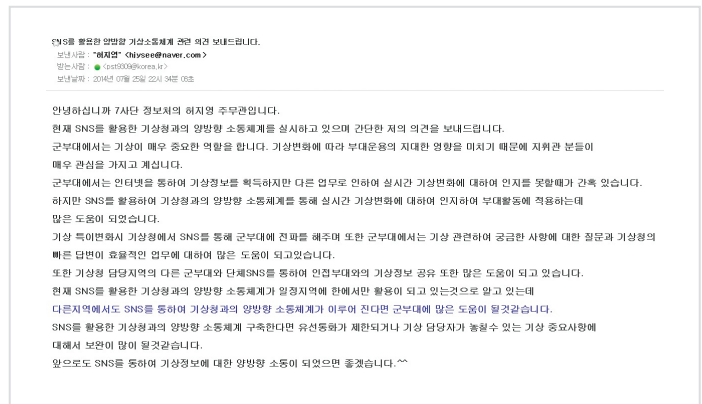
지역기상특성과 지형의 이해가 필요하며, 명함으로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SNS를 활용한 군과의 양방향 소통 지원체계 구축

DMZ 인근 지역으로 기상정보 수요가 군부대 비중이 높아 2014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역기상대 마다 보급된 테블릿 PC에 “카카오톡”앱을 활용하여 군부대 재해 및 기상담당자와의 메신저 그룹을 구축하여 위험기상 발생 또는 예상 시 기상정보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다. 관련업무 호응도를 조사할 때는 “스마트폰 활용이 높고, 업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추진하게 되어 2014년 7월에 7사단 담당자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감사의 E-mail을 수신하게 되었으며 7월 26일 고윤화 기상청장님 방문 시 본 서비스에 대해 보고하여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톡 제공화면



감사의 메일

» 군 기상예보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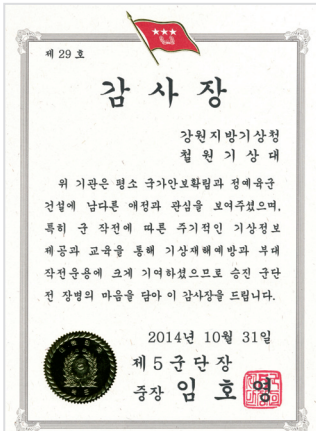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기상정보를 현지 작전 및 안전에 적용하는 능력 배양이 필요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이슈가 되는 기상 현상(호우, 태풍, 폭염, 대설, 한파 등)에 대한 이해와 기상예보를 활용하고 생산과정을 이해하는 능력 배양 프로그램으로서 상반기(5월)와 하반기(10월)에 운영하였다. 또한, 방재기상정보포털시스템 사용법, 스마트통보시스템 활용법, 기후변화 이해와 대응, 위험기상 사례 설명 등의 교육을 통해 군 작전 운용에 심분 활용하였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통보 시스템과 모바일 통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았다. 기상청 소식지인 하늘사랑 12월호 정책클로즈업 코너에 5군단 기상정보 담당자의 활용사례가 실렸으며, 지난 10월 31일에 5군단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되어 지역 신문에 게재되는 등 화제가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위험기상 시 군부대로부터의 민원전화가 수도 없이 많이 걸려와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지만, 요즘은 군부대의 민원전화가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본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매우 컸다.



군 예보사 육성프로그램 강의



관측장비 견학



제5군단장 감사장



기후변화 교육 감사 메일

» 그 밖의 활동사항

철원기상대는 군과의 소통만이 지역기상담당관 업무가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철원군은 오대쌀과 사과 특화 기상지원, 화천군은 블루베리 특화 기상지원을 실시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기상지원을 통해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왔고 방송 및 중앙 언론사가 없는 관계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기상관련 부정적 기사가 단 한건도 없었다.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절반 수준에 그쳐 가뭄관련 활동을 주로 실시하였다. 또한, 나라 e음 영상회의 조기개통과 재난방재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실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상청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가뭄관련 저수지현황 조사



나라 e음 영상회의



지역 언론 기자 간담회



재난방재 실무자 간담회

»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나의 다짐

지역 기상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지역기상담당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나로 하여금 국민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굳게 믿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에 임할 것이다.

제주 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날씨변화가 반영된
정확한 동네예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악기상 사전 대비를 위한 입체적인 기상관측망을 보강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주 인명피해 제로!!

끝없는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기상담당관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오봉학/기상주사 이경호



“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연간 관광객이 천만이 넘는 세계의 관광지역이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타원형의 섬지역으로 해양산업, 농업과 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제주도는 날씨를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지역 산업 발전과 기상재해 제로를 위한 지역기상담당관의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곳이다. 제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은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내 가족을 지키는 신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활동요약

- 선제적 방재활동 전개로 기상재해 제로에 기여
- 효율적 재난방재 업무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공고화
- 제도개선 및 서비스발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방재기상업무 수행기반 마련
- 위험기상 신속전파를 위한 대국민·대언론 소통활동 강화

» 위험기상의 대표주자 “태풍”의 길목을 가로막다

올해에도 태풍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총 4개가 제주도에 직·간접 영향을 주었다. 그중 8호 태풍 너구리와 12호 태풍 나크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태풍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6회)와, 제주시(4회)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사전 설명을 통해 지자체의 방재대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E-mail을 통한 태풍 시나리오 제공을 하여 태풍으로 인한 재해 가능성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언론인터뷰, SMS 등을 통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도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태풍에 의한 약 5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있었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참고로 2007년 나리 태풍 이후 제주의 인명피해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행부장관 방문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주재 상황판단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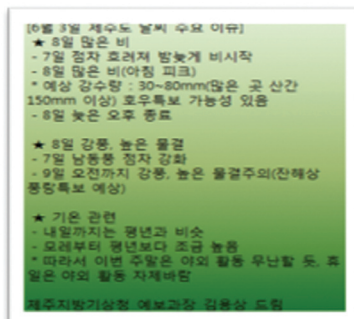
제주해경상황실 방문 설명

» 유관기관과의 벽허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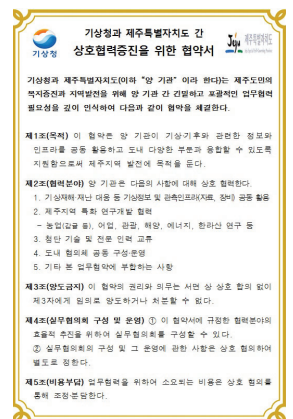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은 다르게 말하면 “유관기관과의 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웃사촌처럼 자유롭게 왕래가 있어야 한다. 제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은 이러한 신념으로 먼저 다가가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상 재난방재를 위한 해양경찰청(제주해경, 서귀포해경 포함)과의 업무교류 실시(4회)를 시작으로 방재대비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2회), 호우, 미세먼지 피해 등 실시간 기상 이슈에 대한 상황별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오피니언 리더 LMS서비스



제주도와의 MOU 체결

제주도 내 주요 의사결정자인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상세 기상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추석 연휴 기상정보 제공 뿐 아니라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브리핑하였고, 지역 주요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실무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 내습을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방재 합동대응을 위한 제주도청 방재협력관이 제주지방기상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기상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었다.

▶▶ 대화합의 스포츠 축제와 함께...

전국체육대회가 스포츠, 문화, 환경이 조화된 융복합체전을 목표로 10월 28일~11월 3일까지 7일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열려 선수단, 임원 3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기상청은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기상담당관을 필두로 스포츠기상자문협력단을 구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스포츠 경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장의 풍향·풍속, 기온, 습도, 강수량 등의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바일 기상관측 차량을 국립기상연구소에 협조하여 대회기간 동안 상세한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와 함께 대회기간동안 전국체육대회 기상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기장별 예보와 주요 관광지 예보를 매 3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주간예보, 위험기상 등 상세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체전종합상황실에 지역기상담당관(기상자문관)을 파견하여 현지 기상 브리핑을 통한 원활한 경기진행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다.



체전 최종점검회의



기상모바일 관측 차량 지원



요트경기 기상자문

▶▶ 바꿔~ 바꿔~ 국민 행복을 위한 제도개선

제주도는 태평양의 시작이며 동북아 해상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하늘길 만큼 바닷길이 중요하고, 유람선, 요트, 스낵스쿠버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 어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및 서비스발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방재기상업무 수행기반 마련에 힘썼다. 남해서부먼바다 동서지역의 상이한 해양기상특성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과 지역민의 불편이 있었는데 예특보 해역의 조정을 통한 해양기상정보의 효율성 향상의 일환으로 남해서부먼바다 구역세분화를 추진하여 12월 10일부터는 정식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특정관리 해역 세분화 요구 민원 접수가 됨에 따라 민원인을 직접면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상 관측망 보강 등 해결방안을 협의 한 끝에 2015년에는 민원해소를 위한 특보분리 운영 세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해서부면바다 구역 분리



해상종사자 간담회



어선안전의 날 행사 참여

대국민 · 대언론 소통 나눔

위험기상 신속전파를 위한 언론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지역 방송사 기상캐스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상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상정보 전달 강화를 위한 언론사 방문(3회)과 오찬간담회(7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언론인 합동간담회를 12월 3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기상 이해 및 자연재난 심각성 고취를 위한 대국민 기상교육(5회)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위험기상 피해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였다. 주요언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 불확실성 시대의 기상정보 활용(제민일보 청장기고, 6.16)
- 재난안전 총괄컨트롤타워 구축(제민일보 등, 6.23)
- 태풍 '너구리' 가두리 양식 등 37건 피해, 인명피해 무(제주일보 등, 7.11)
- 태풍 '너구리'를 보내면서(한라일보 청장기고, 7.17)
- 해상기상관측 현장을 가다(기상 1호 언론인 동반 탐승취재 JIBS 8.31, KCTV 8.29)
- 중문·색달 해변에 이안류 감시시스템 설치(제민일보 등, 9.15)
- 제주도, 전국체육대회 준비 순조(연합뉴스 등 10.14)
- 제주 바다 기상예보구역 세분화(MBC, 10.22)
- 기상청, 기상 서비스 강화 간담회 열어(KBS, 10.22)
- 제주 전국체전서 맞춤형 날씨제공(제주일보, 연합뉴스 등 10.23)



KCTV 8.29



기상캐스터 기상교육



제주MBC, 10.22

▶▶ 우문현답(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심한 가뭄과 폭염에 울어야 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1052.7mm로 평년(781.1m)의 133%를 보였고, 강수일수는 42.5일로 평년(39.6일)보다 2.9일 많았다. 한편, 최고기온은 26.8℃로 평년보다 1.0℃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고산과 성산의 경우 관측 이래 평균최고기온이 역대 5번째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은 태풍 북상, 집중호우, 전국 체육대회를 비롯한 지역 현안 등에 직접 현장을 뛰어나니며 선제적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청 위상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해상 재난방재를 위한 해경·지역 어촌계와의 소통 강화, 언론사와의 유대 강화 등 상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에 주력하였다. 단, 중문색달해변 이안류 발생, 중국발 포자류에 의한 숨털 등의 특이현상 발생 시, 관측장비의 부재 또는 원인규명이 늦어져 문의전화 및 언론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오점도 있었다.

기회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고, 모든 문제해결은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고 한다. 제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담당관으로서 이 교훈을 항상 간직하고 제주도의 재난방재 기여와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전UP 공감UP 행복UP!

서귀포시 지역기상담당관
서귀포기상대 기상사무관 최병성/기상서기 김현우



“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이다.
이에 최근 해양관광산업 및 레저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해양기상이 지역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서귀포시는 날씨와 민감한 산업구조로 지역기상담당관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 더 큰 곳이다.
서귀포기상대 지역기상담당관은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뿐 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행복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들과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다.



활동요약

- ▶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기상담당관
- ▶ 새로운 도전!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지원 기상서비스
- ▶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지역축제 기상서비스'
- ▶ 지역사회와 소통 = 기상업무의 홍보

» 제주 관광의 중심 서귀포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서귀포! 최근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과 올레길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서귀포는 이러한 제주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서귀포 지역산업 또한 농림·어업의 1차 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감귤산업은 전체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감귤산업 맞춤형 방제(防除)기상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해당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약 68억 여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기상담당관

가뭄과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강수일수가 잦고 강수량도 많았던 한 해였으며, 네 차례의 정도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기온도 평년보다 낮았으며, 일조 시간이 모자라 농작물 생육이 더디지는 등의 나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주말에 태풍이 영향을 주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잦은 강수와 태풍의 영향은 지역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로 인한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귀포기상대가 적극적인 기상지원을 실시하였다.

태풍 ‘너구리’와 ‘나크리’의 북상 시에 서귀포시 태풍상황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태풍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방재 업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귀포시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큰 호응과 감사의 뜻을 전달 받았다. 또한, 서귀포해경과 서귀포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방문브리핑을 실시하여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외에도 태풍 시나리오의 신속한 전파와 태풍상황의 실시간 SMS 제공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행복추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태풍상황대책회의 브리핑



태풍 방문브리핑



재해취약지구 현장 방문

▶▶ 새로운 도전!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지원 기상서비스

지난 2년간 「감골산업 맞춤형 방제(防除)기상서비스」의 경험과 성공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새롭게 시도하는 서비스가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지원 기상서비스」이다. 서귀포는 해안선이 181km에 달하여, 온난한 기후와 뛰어난 해안절경으로 유람선, 요트, 스킨스쿠버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 남부해안지역에 맞는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앞서 해양관련 종사자를 파악하고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4월에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시범서비스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내용은 내일예보, 중기예보, 조석 및 천문정보와 기상특보 문자서비스는 물론 국지파랑모델(Coww3)과 국지모델(LDAPS)을 이용한 그래픽 기반의 국지해상예상도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내일의 해상상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10월에는 중간 사용자 방문간담회 결과 사용자들로부터 그래픽을 통한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높은 호응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 이로 인해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지원 기상서비스」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기상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해양관광종사자 방문간담회



해양관광기상서비스 협의체구성

기상서비스 제공

▶▶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지역축제 기상서비스’**

서귀포 지역산업의 비중은 1차 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이는 모두 날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지역민의 직접 참여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단합과 지역문화의 발굴과 체계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서귀포 기상대와 지역축제 주무부서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는 평소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귀포 칠십리축제, 제주 유채꽃큰잔치, 최남단 방어축제,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서귀포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등 다양한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기상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행사기간의 날씨정보와 함께 위험기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날씨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하였으며, 행사관련기관과 담당자들에게 행사의 성격에 맞게 기상정보와 자료를 생산하여 FAX, E-mail, 문자메시지 등 맞춤형 1:1 상세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지자체에서 감사의 문자가 발송되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였다.



축제추진위원회 방문 브리핑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와 소통 = 기상업무의 홍보**

지역 언론인 서귀포신문사를 통해 기상업무 홍보와 지역민과의 기상업무 공유·소통을 위한 정기적 정책기고를 실시 하였다. 매 분기마다 기상과 관련된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지역민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어름철 무더위에 대처하는 방법’과 ‘지구온난화와 가을태풍’에 대한 기고는 지역주민들에게 기상기후가 생활에 밀접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했고 작년과 올해 발생한 가을태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지역민과 관광객 들을 위한 기상기후사진전시회를 서귀포감귤박물관에서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기상기후업무에 대한 이해확산과 홍보를 위한 노력으로 교육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상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과 기상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기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기상업무를 알리고 이해시키는 일들이 곧 기상업무를 홍보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서귀포신문 기고



기상교육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 언제나 도전하는 자세로~

올해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지원 기상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기상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는 과학적인 정보와 함께 지역민의 수준에 맞는 감성적인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대상자별로 정보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향후, 서귀포기상대 지역 기상담당관은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지킴이로서 지역의 재난방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민이 원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